

메시지 1

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성경: 계 1:1-2, 5, 9-12, 7:9-17, 19:10

- (계 1:1-2)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²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 (계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 (계 1:9-12)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¹⁰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¹¹“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²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 (계 7:9-17)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¹⁰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습니다.” ¹¹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¹²“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¹³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¹⁴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¹⁵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¹⁶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쬐이지 않을 것입니다. ¹⁷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계 19:10)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 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I.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 계 1:5, 3:14.

(계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계 3:14)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A.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다.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이다 — 계 1:5.

(계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B. 요한계시록은 계시되신 그리스도와, 증언하는 교회 곧 예수님의 증거를 제시한다. 그리스도

는 하나님의 증거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확대되신 그리스도이다 — 요 1:18, 5:31-37, 8:14, 계 1:2, 5, 9, 19:10, 비교 창 1:26.

(요 1: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5:31-37)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³²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압니다. ³³여러분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³⁴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나온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³⁵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여러분은 잠시 동안 그의 빛 가운데서 크게 즐거워하려고 하였습니다. ³⁶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시어 이루게 하시는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³⁷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직접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모습을 본 적도 없으며,

(요 8:14)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계 1: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계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계 1:9)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계 19:10) 내가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그대와 함께 노예 된 자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노예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수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입니다.”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II. 예수님의 증거는 본성이 금이고(신성하고), 어둠 속에서 빛나며, 서로가 동일한 일곱 금등잔대이다 — 계 1:1-2, 9-12.

(계 1:1-2)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 요한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²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계 1:9-12)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¹⁰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¹¹“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²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A.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 그 영은 교회들로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시며,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 출 25:31-40, 속 4:2-10, 계 1:10-12.

(출 25:31-40)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대는 쳐서 만들되, 잔, 곧 꽃받침과 꽃잎이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³²등잔대 양쪽에서 가지 여섯 개가 나오게 하되,

한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세 개가 나오게 해야 한다. ³³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잔을 세 개 만들고,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잔을 세 개 만들어라. 등잔대의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어라. ³⁴등잔대의 대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잔 네 개를 만들어라. ³⁵등잔대의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다음의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또 그다음의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 개를 모두 이와 같이 하여라. ³⁶그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하되, 모두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한다. ³⁷그리고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 ³⁸등잔 부집계와 불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³⁹등잔대와 이 모든 집기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야 한다. ⁴⁰너는 산에서 너에게 보여 준 모형에 따라 그것들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속 4:2-10) 그가 내게 말하였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각 등잔들을 위한 일곱 관이 있습니다. ³그리고 그 등잔대 옆에는 두 올리브나무가 하나는 대접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있습니다.” ⁴나는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⁵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⁶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⁷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⁸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 ⁹“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이 일을 끝마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음을 알게 될 것이다. ¹⁰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니,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다.”

(계 1:10-12)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¹¹“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²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B. 예수님의 증거,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행 9:4-5, 고전 12:12)인 금등잔대들을 체험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고전 12:3, 13, 롬 10:12-13, 애 3:55-56) 예수님의 영(행 16:7)으로 충만하게 되어, 형제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계 1:9-10)로서 예수님의 낙인(갈 6:17)을 지녀야 한다.

(행 9:4-5)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⁵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고전 12:12) 왜냐하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같이, 그 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롬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¹³“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애 3:55-56)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⁵⁶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 제 호함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행 16:7)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계 1:9-10)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¹⁰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갈 6: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C. 금을 쳐서 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등잔대를 쳐서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 출 25:31, 골 1:24, (출 25:31)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대는 쳐서 만들되, 잔, 곧 꽃받침과 꽃잎이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골 1: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1.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과 바깥 환경에 복종하는 것—에 둔다면, 모든 환경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 호 6:1-3, 빌 3:10상, 엡 6:20, 비교 창 41:42,

(호 6:1-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²그분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³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알기를 추구하자. / 그분의 나아오심은 새벽이 오는 것처럼 분명하니 / 그분은 우리에게 비처럼, /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오시리라.

(빌 3:10상)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엡 6:20) (내가 이 복음의 비밀을 위하여 쇠사슬에 묶인 대사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창 41:42)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 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며,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

2. 사람이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을 허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분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을 더욱더 알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 고후 4:16-18, 12:7-9, 비교 사 7:14-15, 고후 5:14-15.

(고후 4:16-18)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¹⁷우리가 받는 환난은 일시적이고도 가벼운 것인데,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도 중대한 영광을 이루어 냅니다. ¹⁸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후 12:7-9)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 봐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⁸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 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세 번 간청하였습니다. ⁹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 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사 7:14-15) 그러기에 주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¹⁵그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까지, 그는 영긴 젖과 꿀을 먹을 것입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문제의 핵심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다. 고난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 고후 1:8-9, 비교 엡 1:17, 눅 1:78-79.

(고후 1:8-9)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⁹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눅 1:78-79)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모든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⁷⁹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D. 금등잔대들의 비춤은 사람의 아들로서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한다.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 계 1:12-18, 2:1, 딤후 4:22, 히 7:25, 9:24, 민 6:22-27, 신 31:6.

(계 1:12-18)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¹³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¹⁴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¹⁵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¹⁶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¹⁷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엎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¹⁸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계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광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히 7: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 9:24)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즉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민 6:22-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³“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²⁴“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²⁵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²⁶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²⁷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신 31:6) 강해지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E. 금등잔대들의 일곱 등잔이 비추는 것, 불꽃과 같은 일곱 눈과 빛나는 놋쇠와 같은 발로 주 예수님께서 등잔대들 가운데서 거니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신화(神化)하는 그분의 목양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주님의 비추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계 1:14하-15상, 16하, 4:5, 5:6, 눅 1:78-79, 고후 4:6-7, 말 4:2, 잠 4:18, 시 22편 제목, 80:1-3, 7, 15-19.

(계 1:14하-15상)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¹⁵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고, (계 1:16하)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 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눅 1:78-79)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온 것이다. 이로써 돌는 해가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⁷⁹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우리의 발을 평안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고후 4:6-7)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⁷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뿔 것이다.

(잠 4:18)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여명의 빛 같아 / 점점 더 밝게 빛나 한낮에 이른다.

(시 80:1-3)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 그들을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²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³오,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7) 오,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80:15-19)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 주님 위하여 강하게 하신 아들들. ¹⁶이것은 불에 타 잘렸고 / 그들은 주님의 꾸짖는 얼굴 앞에서 멸망하오니 ¹⁷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¹⁸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께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⁹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F.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 — 롬 9:15, 행 9:3-4, 사 50:10-11, 민 6:25-26.

(롬 9: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행 9:3-4)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추므로, ⁴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사 50:10-11) 너희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가 누구며 / 그분 종의 목소리를 듣는 이가 누구냐? / 어둠 속을 거닐어 / 빛이 없는 이가 누구냐? / 그런 이는 여호와와 이름을 신뢰하고 /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¹¹참으로, 불을 피우고 / 햇불로 자신을 두른 너희는 모두 / 너희의 불빛 가운데로 / 너희가 불붙인 햇불 가운데로 들어가거라. /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은 / 바로 너희가 고통 가운데 놓게 되는 것이다.

(민 6:25-26)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²⁶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밝은 표정을 하시고 그대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1.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비추심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 시 139:23-24, 빌 2:12-16, 대하 12:14, 16:12, 34:1-3, 시 27:8, 73:25, 눅 11:33-36.

(시 139:23-24) 오, 하나님! 저를 살피시고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 저를 시험하시고 제 근심을 알아주십시오. ²⁴제게 무슨 해로운 길이 있는지 보시고 /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빌 2:12-16)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¹³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¹⁴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¹⁵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¹⁶생명의 말씀을 밝히십시오. 그래서 내가 헛되이 달리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대하 12:14) 르호보암이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하 16:12) 아사 통치 제삼십구 년에 그의 발에 병이 났다. 그의 병이 매우 심각하였는데, 그는 병에 걸려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대하 34:1-3) 요시야는 팔 세에 다스리기 시작하여 예루살렘에서 삼십일 년 동안 다스렸다. ²그는 여호와와 의 눈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따르며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않았다. ³그는 통치 제팔 년에 아직 어린데도 자기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제십이 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상들과 조각한 우상들과 부어 만든 형상들을 일소하기 시작하였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73: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눅 11:33-36)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합니다. ³⁴그대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그대의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밝지만, 그대의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둡습니다. ³⁵그러므로 그대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살펴 보십시오. ³⁶그대의 온몸이 밝아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면, 등불이 그 빛을 그대에게 비출 때처럼, 온몸이 온전히 밝을 것입니다.”

2.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 자신을 주님께 닫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 고후 3:16, 잠 20:27, 마 7:1-5, 눅 6:36-37, 41-42.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잠 20:27) 사람의 영은 여호와와 동이라 / 내적 존재의 모든 깊은 곳을 살핀다.

(마 7:1-5) 여러분이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판단하지 마십시오. ²왜냐하면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 여러분도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³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⁴보십시오, 그대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그대가 형제에게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⁵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눅 6:36-37)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여러분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³⁷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죄판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

러분도 결코 유죄판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눅 6:41-42)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십니까? ⁴²그대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대의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조망,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멈춘 사람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 — 눅 10:38-42, 요 11:21-28, 사 40:31, 마 5:3, 눅 18:15-17, 사 66:1-2.

(눅 10:38-42) 예수님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였는데, ³⁹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⁴⁰마르다는 시종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⁴¹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그대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애쓰지만, ⁴²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요 11:21-28)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²²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²³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라고 하시니, ²⁴마르다가 말씀드렸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²⁵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²⁶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²⁷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²⁸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사 40:31) 여호와를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가겠고 /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 걸어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눅 18:15-17)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자,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었다. ¹⁶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그 안으로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 66:1-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하늘은 나의 보좌요 /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집이 어디 있겠으며 /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²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굶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4.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과 다투지 말아야 하고,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 행 22:10, 아 5:4-6, 고후 10:3-5, 11:2-3, 민 16:1-7, 31-39, 17:1-8, 비교 출 33:11-14.

(행 22:10)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거기에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에 관하여 말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 5:4-6) 내 사랑하는 이가 문틈으로 그이 손을 들이밀자 / 내 속부분들이 그이를 간절히 바랐어요. ⁵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리려 일어나니 / 내 손에서는 몰약이, / 내 손가락에서는 몰약즙이 / 문지방 손잡이 위로 푹푹 떨어졌어요. ⁶내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 드렸으나 / 내 사랑하는 이는 그만 몸을 돌려 가 버리고 말았네요. / 그이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었지요. / 그이를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하고서 / 그이를 불렀건만—그이는 대답 없었어요.

(고후 10:3-5)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 안에서 행하지만, 육체를 따라 싸우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⁴우리가 싸우는 데 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인데, 그것은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고, ⁵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며, 각종 사상을 사로잡아 와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합니다.

(고후 11:2-3)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 ³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위를 속였던 것처럼,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민 16:1-7)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 ²모세와 맞서 일어나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회중의 인도자 이백오십 명도 함께하였는데, 이들은 총회 가운데에서 부름 받은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³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너무 분수에 지나치오. 온 회중이 각자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들은 여호와와 회중보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오?” ⁴모세는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⁵그리고 나서 모세는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일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를 알려 주실 것이며, 그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하신 사람을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⁶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대 고라와 그대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⁷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으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레위 자손이여, 여러분이야말로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민 16:31-39)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 밑에 있는 땅이 갈라졌다. ³²땅은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모든 소유물을 삼켜 버렸다. ³³그리하여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스올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 버렸다. 그들은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였다. ³⁴그들의 비명에 그들 주위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도망치며 “땅이 우리도 삼킬지 모른다!”라고 하였다. ³⁵그때 여호와에게서 불이 나와 향을 바친 이백오십 명을 태워 버렸다. ³⁶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³⁷“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하여, 불 속에서 향로들을 꺼내 오고 그 속의 불은 다른 곳에 흩어 버리게 하여라. 그 향로들은 거룩하다. ³⁸죄를 지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가져온 향로를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그 향로들은 여호와에게 바쳐져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표시가 될 것이다.” ³⁹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에 타 버린 사람들이 바친 그 놋 향로들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에 입힐 판을 만들었는데,

(민 17: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²“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막대기를 거두되, 각 조상의 집안마다 하나씩 곧 그들 조상 집안에 따라 그 모든 인도자에게서 열두 개의 막대기를 거두어라. 너는 그 막대기 위에 각 사람의 이름을 써야 한다. ³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각 조상 집안의 우두머리마다 막대기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⁴너는 회막 안,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판 앞에 그 막대기들을 놓아두어야 한다. ⁵내가 선택하는 바로 그 사람의 막대기에 싹이 날 것이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 회에게 불평하는 것 곧 나에게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겠다.” ⁶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조상 집안에 따라 막대기를 각자 하나씩, 곧 열두 개의 막대기를 그에게 주었다. 아론의 막대기도 그 막대기들 가운데 있었다. ⁷모세는 그 막대기들을 증거막 안 곧 여호와 앞에 놓아두었다. ⁸다음 날 모세가 증거막 안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안을 위한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 있었다. 심지어 그 막대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익은 아몬드가 달려 있었다.

(출 33:11-14) 여호와와는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눈의 아들이자 모세를 시종드는 청년인 여호수아는 천

막을 떠나지 않았다. ¹²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주님은 저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올라가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알려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또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¹³그러니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디 저에게 주님의 길을 알려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제가 주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민족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¹⁴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5.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안에 살아야 한다 — 사 2:5, 요일 1:7, 히 9:14, 10:22, 마 5:3, 8, 14, 시 119:105, 계 1:20, 시 36:8-9.

(사 2:5) 야곱 집아, 와서 여호와와 빛 안에서 행하자.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히 9: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히 10:22)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악한 양심에서 떠났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어졌으니, 진실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시 119:105) 주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 제 길의 빛입니다.

(계 1:20)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시 36:8-9)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쁨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Ⅲ.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 전체인데, 이들은 하늘들로 휴거되어 오늘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양의 목양을 누린다 — 계 7:9-17, 엡 1:3, 갈 3:14, 창 12:2, 비교 계 21:3-4, 22:3-5, 사 49:10.

(계 7:9-17) 이 일들이 있는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겹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¹⁰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습니다.” ¹¹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하였습니다. ¹²“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히 있습니다. 아멘.” ¹³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응답하여 “이 흰 겹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라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¹⁴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겹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¹⁵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¹⁶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쬐이지 않을 것입니다. ¹⁷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엡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갈 3: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창 12:2)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 너에게 복을 주며 /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니 / 너는 복이 되리라.

(계 21:3-4)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⁴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계 22:3-5)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⁴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⁵더 이상 밤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사 49:10) 그들은 굶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겠고 / 뜨거운 열이나 해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며 / 그들을 샘물로 안내할 것이기 때문이라.

A. 큰 무리는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양의 피로 사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 계 7:9상, 5:9, 롬 11:25, 행 15:14, 19, 고전 6:19-20.

(계 7:9상) 이 일들이 있는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계 5:9)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롬 11:25) 형제님들,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은 곧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가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 15:14)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얻으시려고 어떻게 그들을 처음으로 방문하셨는가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는데,

(행 15:19)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괴롭히지 말고,

(고전 6:19-20)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²⁰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B.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 계 7:14.

1.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 — 요 16:33.

(계 7:14) 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요 16: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2. 어린양의 피는 우리에게 대한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여 우리가 그를 이기도록 한다(계 12:11). 우리의 모든 죄와 불결을 씻는 보혈의 열린 샘(속 13:1, 요 19:34)이신 구속하시는 그

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아래 잠기어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없앨 수 있으며(영한 동변 찬송가 1006장,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86장 1절), '새로워진 마음으로 흰옷을 입고서 / 하나님의 빛 가운데 / 세상과 죄 이겨'(영어 찬송가 1010장 3절) 낼 수 있다.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속 13:1) “그날에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위하여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3. 우리의 겉옷을 빼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생명의 성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 요일 1:7, 계 22:14.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C. 그 큰 무리는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다 — 계 7:9하.

(계 7:9하) 흰 겉옷을 입고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1. 야자나무 가지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환난을 겪었다. 야자나무는 또한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만족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 계 7:14, 비교 요 12:13, 출 15:27.

(계 7:14) 그래서 내가 그에게 “장로님, 장로님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요 12:13)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이스라엘의 왕을 찬송하여라!”

(출 15: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는데, 거기에는 열두 곳의 샘과 일흔 그루의 야자나무가 있었다. 그들은 그 샘물가에 진을 쳤다.

2. 하나님의 성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밤낮 그분을 섬기면서 영원한 장막절이신 그분을 누리고 야자나무처럼 생명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 계 7:15상, 3:12, 레 23:40, 느 8:15, 시 92:12-13, 요 7:2, 37-39, 롬 1:9, 골 2:19.

(계 7:15상)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레 23:40) 첫날 너희는 우람한 나무에서 난 것과 야자나무 가지와 잎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 버드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칠 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느 8:15)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서 다음과 같이 공표하며 선포하라고 기록된 것을 발견하였다.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와 야생올리브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야자나무 가지와 그 밖에 잎이 많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어라.”

(시 92:12-13)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번성하고 / 레바논 백향목처럼 자랄 것입니다. ¹³그들은 여호와 의 집에 심어져 /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며

(요 7:2)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다가왔다.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³⁸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³⁹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롬 1:9) 내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여러분을 얼마나 끊임없이 언급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나의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골 2:19)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몸은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로부터 풍성하게 공급을 받고 함께 짜여, 하나님께서 자라심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3.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원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이다.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에게서 나가실 때 그것이 봉사이다 — 마 25:19-23, 요 7:37-39.

(마 25:19-23)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²⁰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아와 ‘주인님, 나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하자, ²¹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²²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아와 ‘주인님, 나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라고 하자, ²³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에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³⁸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³⁹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 D.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 계 7:16상.

(계 7:16상)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1.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되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만족할 것이고, 만족하게 하는 생명하신 그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요 6:35.

(요 6: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2. 우리의 영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 요 4:13-14, 23-24.

(요 4:13-1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¹⁴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4:23-24)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²⁴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 E. 내리쬐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 계 7:16하.

(계 7:16하) 해나 어떤 뜨거운 열이 그들에게 내리쬐이지 않을 것입니다.

1.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 — 계 7:15하, 고후 12:9.

(계 7:15하)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고후 12:9)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

력은 사람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2. 한 종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 시 36:7-9, 엡 6:17, 시 91:1, 17:8, 57:1, 롯 2:12.

(시 36:7-9) 오, 하나님! 주님의 자애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 그러하기에 사람의 아들들이 주님의 날개 그들로 피합니다. ⁸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⁹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엡 6: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겹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시 91:1) 가장 높으신 분의 비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는 / 전능하신 분의 그늘에 거하리라.

(시 17:8) 저를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며 /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겨 주시어

(시 57:1) 저를 은혜로이 대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를 은혜로이 대해 주십시오. / 제 혼 주님께로 피합니다. / 멸망이 지나갈 때까지 / 참으로 저는 주님의 날개 그들로 피하렵니다.

(롯 2:12) 여호와께서 그대가 한 일을 보상에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찾기 위해 왔으니, 그분에게서 온전한 보상을 받기를 바라오.”

3.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자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감싸 주시는 왕이시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시다 — 사 32:1-2.

(사 32:1-2) 참으로 한 왕께서 의에 따라 통치하시고 / 통치자들이 정의에 따라 다스리리라. ²한 사람이 바람 피하는 곳과 / 폭풍우 가리는 곳 같고 /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F.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 — 계 7:17상.

(계 7:17상)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며,

1.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 시 23:1.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한 것 없으리.

2. 우리는 결코 자신을 개선할 수 없고, 항상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필요하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어린양들에게 먹이신다 — 시 23:2-6, 계 22:1.

(시 23:2-6)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³내 혼을 소생시키시며 /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 나를 의의 길들로 안내하시네. ⁴제가 비록 /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 해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 저를 위로해 줍니다. ⁵주님께서 저의 대적들 앞에서 /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 제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 제 잔이 넘칩니다. ⁶제 평생에 / 선과 자애가 분명 저를 따르리니 / 저는 여호와의 집에 / 평생토록 거주하렵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G. 그분은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 계 7:17하.

(계 7:17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 눈물은 이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 — 히 5:7, 행 20:19, 31, 시 56:8, 비교 말 3:16.
 - (히 5:7)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께 크게 부르짖으시며 눈물로 간구와 간청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경건함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 (행 20:19) 나는 모든 겹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
 - (행 20:31)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 (시 56:8) 주님은 제가 방황하는 것을 헤아려 두셨습니다. / 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 그것이 주님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 (말 3:16)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자기 이웃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분 앞에 있는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이들에 관하여 기록하셨다.
2. 어린양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닦아진다 — 렘 9:1, 2:13, 비교 15:16, 애 3:21-25, 55-56.
 - (렘 9:1) 아, 내 머리가 물이고 / 내 눈이 눈물 샘이라면 / 살해당한 내 백성의 딸을 위해 / 밤낮으로 울 수 있으면!
 - (렘 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 나를 저버렸고 /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 (렘 15: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 주님의 말씀이 제게 /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 (애 3:21-25) 그러나 저는 이것을 마음에 되새기므로 / 소망을 갖습니다. ²²여호와와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²³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²⁴여호와는 나의 몫 /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 다네. ²⁵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 그분을 찾는 혼에게 그분은 좋으신 분.
 - (애 3:55-56)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렁이 속에서 /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⁵⁶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 제 호함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3. 슬픔의 날들과 슬픔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시는 축복을 받았다 — 요 4:14하.
 - (요 4:14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메시지 2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성경: 계 1:17-18, 10:7, 12:11, 15:1, 8, 행 2:24, 빌 3:10-11

- (계 1:17-18) 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¹⁸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 (계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에 신언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 (계 15:1)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재앙들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 (계 15:8)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행 2: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 (빌 3:10-11)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¹¹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I.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 있는 이이다.” — 계 1:17하-18상.

- A. 그리스도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라는 것은 자신이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함축한다.
- B. 주 예수님은 처음이실 뿐 아니라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끝이시다 — 계 21:6, 22:13.
- (계 21:6) 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
- (계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1. ‘처음’이라는 것은 그분 이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분 이후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기원이시라는 것이고, ‘끝’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의 완결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3. 이것은 주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 없이는 기원도 완결도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C.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이실 뿐 아니라 시작과 끝이시다. 이것은 교회생활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분명 교회생활을 완성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 비교 딤후 4:5.
- (딤후 4:5)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1. 주 예수님은 결코 그분의 일을 끝마치지 않으신 채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 계 10:7, 15:1, 8.
- (계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에 신언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계 15:1) 그리고 나는 하늘에 나타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보았습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 재앙들로 마쳐지기 때문입니다.

(계 15:8)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으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2.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시작과 끝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3. 주 예수님은 자신이 그분의 회복 안에서 시작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 D. 교회들 가운데를 거니시고 교회들의 머리이시며 교회들의 소유자이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해야 한다 — 계 2:1.
(계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II.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 계 1:18상.

- A.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 계 2:8.
(계 2: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 B. 그리스도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었다(행 2:24). 왜냐하면 그분께서 부활이시기 때문이다(요 11:25).
(행 2: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 C. 부활은 주님의 날들의 연장이다. 주님은 부활 안에서 영원토록 존재하실 것이다.
 1.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살아 계신 분, 곧 부활 안에 계신 분이시다.
 2.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분배하시려면 반드시 살아 계신 분이셔야 한다.
- D.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분이시라는 것의 중요성은 그분이 영원히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는 데 있다.
 1. 그분은 우리가 온갖 종류의 죽음을 떠나 살아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2. 우리는 살아 있을수록 더욱더 살아 계신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 간다 — 계 12:11.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III. “영 안에서 그분(그리스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 벰전 3:19.

- A. 영들은 음부에 갇혀 있는 죽은 사람들의 영, 곧 죽은 사람들의 몸에서 분리된 영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어두운 구렁이에 갇혀 큰 날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천사들은 영들임—히 1:14)을 가리킨다 — 벰후 2:4-5, 유 6.
(히 1:14) 천사들은 모두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어진 이들이 아닙니까?
(벰후 2:4-5) 하나님은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타르타로스에 던지시어 어두운 구렁이에 내 버려두심으로써, 심판 때까지 갇혀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

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잠기게 하실 때,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호하셨습니다.

(유 6) 자기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어둠 아래 가두셨습니다.

B. 그리스도는 육체 안에서 죽으신 후에, 그분의 신성인 살아 있는 영 안에서 무저갱에 가시어 반역적인 천사들에게 그분께서 육체가 되셔서 육체 안에서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 곧 신성한 계획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C. ‘감옥’(벧전 3:19)은 타르타로스(Tartarus), 곧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깊고 어두운 구렁이를 의미한다.

(벧전 3:19) 영 안에서 그분은 또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시어 선포하셨습니다.

IV.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 계 9:1-2, 11:7, 17:8, 20:1, 3.

(계 9:1-2)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²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렁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렁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계 11:7)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계 17:8)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A.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별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그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1. 천사들은 별들에 비유된다 — 욥 38:7, 계 12:4.

(욥 38:7) 그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외치지 않았느냐?

(계 12:4)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의 그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또 용은 여자가 해산하면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있었습니다.

2. 천사장인 사탄은 원래 계명성이었다 — 사 14:12.

(사 14:12)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B.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 롬 10:7.

1. ‘무저갱’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비소스(abyssos)’이다.

2. 이 단어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귀신들의 거처와 관련하여 사용된다 — 눅 8:27, 33, 35, 38.

(눅 8:31) 귀신들은 자기들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마시도록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눅 8:27)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을 때,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으며, 무덤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다.

(눅 8:33)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 돼지 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빠져 죽었다.

(눅 8:35)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눅 8:38) 그때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3.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과 11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메뚜기들’이 나올 장소를 가리키며, 그들의 왕은 아폴리온이다.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계 9:2)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어두워졌습니다.

(계 9:11) 그 메뚜기들에게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곧 무저갱의 천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입니다.

4. 요한계시록 11장 7절과 17장 8절에서 이 단어는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올라올 장소를 의미한다.

(계 11:7)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계 17:8)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하여 버릴 것입니다.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볼 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5.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서 이 단어는 사탄이 던져져서 천년왕국 동안 갇혀 있게 될 장소를 설명한다.

(계 20:1)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6. 로마서 10장 7절에서 무저갱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기 전에 가셨던 장소를 가리키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 따르면 그 장소는 음부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24절과 2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음부로 가셨다가 부활하실 때 그곳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이다.

(롬 10:7)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갈 것인가?’라고 하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셔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행 2: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행 2:27) 주님께서 제 혼을 음부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으시게 하실 것입니다.

7. 성경의 용법에 따르면, ‘무저갱’이라는 단어는 항상 죽음의 영역, 사탄의 어둠의 세력의 영역을 가리킨다. 그곳은 땅 아래 낮은 곳이며(엡 4:9), 그리스도는 죽으신 후에 그곳에 내려가셨다가 그곳을 정복하시고 부활 안에서 그곳에서 올라오셨다.

(엡 4:9)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V. 요한계시록 1장 18절 하반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 A. 사람의 타락과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와,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일하면서 죄 있는 모든 사람을 모아, 죽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곳인 음부로 데려가고 있다.
- B. 그러나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음부에 지배받지 않는다 — 빌 3:10-11.
(빌 3:10-11)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 C.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없애 버리시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1.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렇게 할 힘이 전혀 없었다 — 행 2:24.
(행 2: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교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자 부활이시며(요 1:1, 11:25),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하신다(히 7:16).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히 7:16) 그분은 육체와 연관된 계명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으로 세워지신 것이 아니라,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에 따라 세워지셨습니다.
 3. 이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살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그분을 붙잡을 수 없다.
 4. 주님은 그분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했고 그분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5.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죽음은 쏘는 것이 없고 음부는 능력이 없다.
- D.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시면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므로, 죽음과 음부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 E. 교회생활 안에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주님의 손에 있다.
- F. 우리가 죽음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 우리는 도무지 죽음을 다룰 역량이 없다.
 2. 죽음이 들어올 때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정복될 것이다.
- G. 우리가 주 예수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하실 기반과 기회와 자유로운 길을 드린다면, 죽음과 음부는 모두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 마 16:18, 계 20:14.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계 20:14) 죽음과 음부도 불 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 못입니다.
1. 주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기반을 얻지 못하시면, 즉시 죽음이 우세하게 되고 음부는 죽은 이들을 붙잡을 능력을 얻게 된다.
 2.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 즉 죽음과 음부에 대한 권위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 요 5:27, 17:2, 계 12:10.
(요 5:27)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요 17: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이미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계 12: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 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3. 죽음은 그분께 복종하고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

H.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 — 계 1:18, 히 13:15, 벰전 1:7, 계 19:5-6.

(계 1:18) 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히 13:15) 예수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 제물, 곧 그분의 이름을 시인하는 입술의 열매를 드립시다.

(벰전 1:7)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고 마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배로 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계 19:5-6) 보좌에서 “하나님의 모든 노예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작고 큰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 을 찬양하여라.”라고 하는 한 음성이 났습니다. ⁶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메시지 3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경: 계 1:9-2:1

(계 1:9-2:1)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¹⁰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¹¹“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²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¹³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¹⁴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¹⁵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¹⁶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¹⁷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¹⁸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¹⁹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 일들이 있는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²⁰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²¹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I.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은 사람의 영 안에서 교회의 터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이들이다 — 계 1:9-13, 20.

(계 1:9-13)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밧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¹⁰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¹¹“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¹²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¹³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계 1:20)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A. 초기에 교회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 곧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것이었다. 한 도시에 하나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 않았다 — 행 8:1, 13:1, 계 1:11.

(행 8:1) 사울도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졌다.

(행 13:1) 안디옥에, 곧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 왕 헤롯과 함께 자라난 마나엔, 사울이었다.

(계 1:11)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곧 에베소에, 서머나에, 버가모에, 두아디라에, 사데에, 빌라델비아에, 라오디게아에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B.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모이는 우리의 집회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다 — 비교 신 12:5.

(신 12:5)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1.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시 133편, 요 17:11, 21-23, 고전 1:10, 엡 4:3.
 (시 133편)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²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 수염을 타고 /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³헤르몬의 이슬이 /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 영원한 생명이라.
 (요 17: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기록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요 17:21-23)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²²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²³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또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엡 4:3) 화평의 때는 피로 그 영의 하나를 힘써 지키십시오.
2.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며, 이 이름의 실재는 그 영이다. 그 어떤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 붙으면 교파가 되고 분열되는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 마 18:20, 고전 1:12-13, 12:3하.
 (마 18:20)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 1:12-13)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¹³그리스도께서 나누어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고전 12:3하)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 다시 말해서 거듭나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 — 요 3:6하, 롬 8:16, 딤후 4:22, 엡 2:22, 요 4:24, 계 1:10, 고전 14:15.
 (요 3:6하)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롬 8:16) 그 영께서 직접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엡 2:22) 그분 안에서 여러분 또한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계 1:10)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도 기도할 것이며,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생각으로도 찬송할 것입니다.
4. 넷째,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마 16:24, 갈 2:20) 제단으로 상징된(신

12:5-6, 2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한다.

(마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신 12:5-6) 오직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선택하실 곳인 그분의 처소를 찾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⁶여러분은 번제물과 희생 제물과 십일조와 여러분의 손의 거제물과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과 소 떼나 양 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신 12:27) 그대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번제물 곧 고기와 피를 바쳐야 합니다. 그대가 바치는 다른 희생 제물의 피는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제단에 쏟고, 그 고기는 그대가 먹어야 합니다.

C.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에 참여한 이들이다.

1. ‘예수님 안에서’란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곧 고난을 견디는 넘치는 힘을 가지신 한 사람의 영에 의해 고난을 견디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행 16:6-7.

(행 16:6-7)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⁷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2. 우리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신다 — 행 9:4-5, 히 13:13.

(행 9:4-5)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⁵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히 13:13)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께서 받으신 비난을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3.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 행 14:22.

(행 14:22)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4.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 — 빌 3:10, 골 1:24, 아 2:8-9, 14.

(빌 3: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골 1: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 2:8-9) “내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지금 그이가 오고 있어요, / 산들을 뛰어오르고 / 언덕들을 뛰어넘어. ⁹내 사랑하는 이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 같답니다. / 지금 그이가 우리 담 뒤에서 서성이며 / 창문들 틈으로 들여다보고 /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군요.

(아 2:14) 바위틈에 있는, /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 그대의 표정을 보게 해 주고 /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 그대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 표정은 사랑스럽다오.

5.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 — 계 12:11, 요일 3:16.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요일 3:16)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D.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국에 참여한 이들이다.

1. 왕국은 신실한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교회생활이다 — 마 16:18-19, 롬 14:17, 고전 3:7, 고후 3:18.

(마 16:18-19)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¹⁹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롬 14:17)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7)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 이십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2. 왕국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3. 왕국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죄지은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 마 18:15-22, 요일 5:16.

(마 18:15-22) 더욱이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가서,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¹⁶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십시오. ¹⁷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¹⁸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¹⁹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²⁰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안에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²¹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라고 하니, ²²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해야 합니다.

(요일 5:16)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것에 관하여 그분께 청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E.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내에 참여한 이들이다.

1.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저항해야 한다 — 단 7:25.

(단 7:25)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을 거슬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며,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2.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과 반대를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된다 — 계 3:10.

(계 3: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3.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할 수 있다 — 살후 3:5.
 (살후 3: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하는 데 이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I.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계 1:13),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계 1:13)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 A. 사람의 아들은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한다.
1.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강화되셨지만(출 28:4, 단 10:5), 지금은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들을 가슴에 띠를 띠심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출 28:4) 그들이 만들 의복은 가슴받이와 에봇과 겹옷과 각양의 무늬를 넣어 짠 긴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이다. 이렇게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의복을 만들어 주어, 그가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단 10:5)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의 정금 띠를 띤 한 사람이 있었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사용되고 발휘되는 것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고 계신다 — 계 1:13상.
 (계 1:13상) 그 등잔대들 가운데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적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출 30:7) 아론은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에 향을 피워야 한다.
 (시 42:5)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 그분의 얼굴로 구원하시는 분을.
 (시 42:11)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 내 얼굴의 구원이시며 내 하나님이신 분을.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림으로 생명의 보양하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 4:6, 엡 4:11.
 (엡 5:29)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피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딤후 4: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엡 4: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다듬으심으로, 우리가 비추는 것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 내신다 — 출 25:38.

(출 25:38) 등잔 부집게와 불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라.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내야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잘못된 행위와 결점과 실패와 결함)을 잘라 내심으로,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교회들을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고전 1: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고후 12:18)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으며,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습니다. 디도가 여러분을 이용하였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영 안에서,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빌 2: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C. 그리스도는 가슴에 띤 금띠로 상징된 것처럼,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 계 1:13하.

(계 1:13하)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2.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계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등잔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Ⅲ. 하늘에 속하신 주님께서 태고부터 계신 것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 계 1:14상, 단 7:9, 욥 15:10, 비교 아 5:11.

(계 1:14상)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눈같이 희었고,

(단 7:9) 내가 살펴보니 / 보좌들이 놓이고 /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으셨는데 / 그분 옷은 흰 눈 같고 / 그분 머리털은 순전한 양털 같았으며 / 그분 보좌는 불꽃이었고 / 그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었다.

(욥 15:10) 우리 가운데는 백발성성한 분과 노인분들이 계신데 / 다 자네 부친보다도 나이 드신 분들이네.

(아 5:11) 그이 머리는 가장 좋은 금이며 / 그이 머리채는 고불고불하고 / 까마귀처럼 검지요.

IV.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빛 비추고 주입함으로써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4하, 5:6, 단 10:6.

(계 1:14하)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으며,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단 10: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낸 듯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A. 칠(7)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그리스도의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이다.

B.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에 관련된 것이다 — 단 7:9-10, 계 2:18, 19:11-12.

(단 7:9-10) 내가 살피보니 / 보좌들이 놓이고 /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으셨는데 / 그분 옷은 흰 눈 같고 / 그분 머리털은 순전한 양털 같았으며 / 그분 보좌는 불꽃이었고 / 그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이었다. ¹⁰볼 시내가 흘러 / 그분 앞에서 나오고 / 그분을 섬기는 이가 천천이며 / 그분 앞에 선 이가 만만하였다. / 심판의 법정¹⁰이 열리고 / 책들이 펴졌다.

(계 2:18)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나는 닳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계 19:11-12)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¹²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V.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닳쇠와 같은데,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1:15상, 겔 1:7, 단 10:6.

(계 1:15상)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닳쇠와 같고,

(겔 1:7)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고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 같았는데, 광택 나는 닳과 같이 눈부시게 빛났다.

(단 10: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낸 듯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VI.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계 1:15하, 비교 14:2), 이 소리는 천둥과 같은 소리, 곧 엄숙하고 장엄한(비교 10:3)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겔 1:24, 43:2).

(계 1:15하)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으며,

(계 14:2)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¹¹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¹²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¹³와도 같았습니다.

(계 10:3)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겔 1:24) 그들이 나아갈 때, 그 날개 소리를 내가 들으니 큰 물소리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 같았다. 그것은 군대의 소리 같은 요란한 소리였다. 그들은 멈추어 설 때면 그 날개를 접었다.

(겔 43:2)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 오고 있었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다.

VII.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 계 1:16상, 20.

(계 1:16상)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계 1:20)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비밀은 다음과 같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전달자이고,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이다.

A.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B. 별들처럼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는 전달자들은 주님에게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이다 — 계 2:1상.

(계 2:1상)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C. 인도하는 이들은 그분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VIII. 그분의 입에서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이 칼은 그분의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으로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6하, 히 4:12, 엡 6:17.

(계 1:16하)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오며,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히 4: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어 찢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엡 6: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IX. 그리스도의 얼굴(단 10:6)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심판하는 빛 비춤이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계 1:16하, 10:1, 마 17:2, 비교 말 4:2, 사 5:31, 마 13:43).

(단 10:6) 그분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으며, 그분의 눈은 햇불 같고, 그분의 팔과 발은 광난 듯이 빛나는 것 같으며, 그분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았다.

(계 1:16하)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계 10:1)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마 17: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사 5:31) 오, 여호와님! 주님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멸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 그러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 힘 있게 돌는 해와 같게 하여 주십시오.” / 그 이후로 그 땅은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다.

(마 13: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X.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결코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또한 살아 계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하게 하신다 — 계 1:17-18상.

(계 1:17-18상) 그분을 뵈고서,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분께서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¹⁸살아 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 있으며,

XI.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 계 1:18하.

(계 1:18하)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 A.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무효화하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 딤후 1:10, 행 2:24.

(딤후 1:10)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행 2:24)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 B.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기를 훈련함으로써,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 마 16:18, 21-26.

(마 16: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 16:21-26)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제삼 일에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시기 시작하시니, ²²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²³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²⁴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²⁵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²⁶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생명과 바꾸겠습니까?”

메시지 4

사자-어린양

성경: 계 5:5-10

(계 5:5-10)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뿔 수 있습니다.”⁶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⁷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⁸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⁹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¹⁰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I.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 책의 스물두 장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나타내는 하나의 초상화이다 — 계 1:1-2, 5.

(계 1:1-2)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천사를 자기의 노예에게 보내시어, 이 계시를 표징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²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계 1: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II.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 계 5:5상.

A. 사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과 9절에 계시된 것처럼, 그분을 원수와 맞서 싸우는 강한 전사로 묘사하는 것이다.

(창 49:8-9)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니 / 너의 손은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며 /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을 할 것이다. ⁹유다는 젊은 사자 / 내 아들아, 너는 먹잇감의 일부를 가지고 올라갔다. / 그는 앞드리고 누운 것이 수사자 같고 /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건드리랴?

B.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므로, 그분은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뿔 자격이 있으시다 — 계 5:5-10.

(계 5:5-10)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뿔 수 있습니다.”⁶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⁷그 어린양께서 나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습니다. ⁸어린양께서 두루마리를 받아 드셨을 때, 네 생물과 스물네 장로는 각각 수금과, 향들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들을 가지고 어린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대접들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⁹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¹⁰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C. ‘다윗의 뿌리’라는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조상인 다윗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 마 22:42-45.

(마 22:42-45)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니, ⁴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까? ⁴⁴‘주님께서 나의 주님께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밑에 둘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⁴⁵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 되시겠습니까?”

D.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반역적인 사탄을 이기고 패배시키셨다. 또한 구속하는 어린양이신 그분은 타락한 사람의 죄를 없애셨다.

1. 그분은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데에 방해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셨다.
2. 그 결과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다.

Ⅲ. “내가 보니, 보좌와 …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 계 5:6, 1:4, 3:1.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계 3: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A. 요한계시록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의 하늘의 광경이 펼쳐진다.

1.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추천되셨지만, 어린양으로서 요한에게 나타나셨다.
2. 사자이신 그분은 원수와 맞서 싸우는 전사이시고, 어린양이신 그분은 우리를 위한 구속자이시다.
3.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싸우셨고, 전쟁에서 원수를 이기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다.
4. 원수에게 그분은 사자이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어린양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사자-어린양이시다.

B. 그리스도는 구속의 방면에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늘들에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지만(히 1:3, 10:12),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시는 방면에서는 승천 안에서 여전히 서 계신다.

(히 1: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0:12)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들에 대한 하나의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C. ‘갓 죽음을 당하신’이라는 말은 어린양께서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광경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직후에 펼쳐졌다는 것을 가리킨다.

D. 주님은 일곱 뿔을 갖고 계신다 — 계 5:6하.

(계 5:6하)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1. 뿔은 싸우는 힘을 상징한다 — 신 33:17.

(신 33:17) 그는 처음 난 소처럼 위엄이 있고 /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같습니다. / 그는 그 뿔로 백성들을 들이받아 / 땅끝까지 밀어붙일 것입니다. /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 므낫세 수천 명이 그러합니다.”

2.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양이시지만, 싸우기 위한 뿔이 있으시다.
3. 그분은 싸우는 구속자이시다. 일곱이라는 수가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움직임에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은 완전하다.

E. 눈은 감찰하고 살피기 위한 것이다.

1. 구속하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을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2. 스가랴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는 돌, 곧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 돌(4:7)로 예언되었다.
(스 3:9)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선포이다.
(스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3.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이 일곱 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 — 스 4:10.
(스 4:10)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이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추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일곱이 기뻐하리니, 이 일곱은 온 땅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와 눈이다.”
4. 헬라어 문법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일곱 눈’이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5. 하나님의 일곱 영은 어린양의 일곱 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린양의 일곱 눈을 가리킨다.

IV. “하나님의 일곱 영” — 계 1:4, 3:1, 4:5, 5:6하.

-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 (계 3: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 (계 5:6하)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A.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에 대해 말한다.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1. 일곱 영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일

곱 영이 삼일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나란히 계시기 때문이다.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2. 일곱은 하나님의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일곱 영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분이심이 분명하다.

3.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과 존재에서는 하나이지만, 운행하실 때에 그 강화된 기능과 일에서는 일곱 배가 되신다.

a. 이것은 스가랴서 4장 2절에 있는 등잔대와 비슷하다.

(슥 4:2) 그가 내게 말하였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각 등잔들을 위한 일곱 관이 있습니다.

b. 그 등잔대는 존재의 면에서는 하나이지만, 기능의 면에서는 일곱 등불이다.

4.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이미 타락했다.

a. 시대는 어두웠다.

b.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하나님의 영이 필요했다.

B.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삼일 하나님의 순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

(마 28: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1. 하나님의 일곱 영이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열거되어 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된 영의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3. 이것은 요한계시록 2장 7절과 11절과 17절과 29절, 3장 6절과 13절과 22절, 14장 13절, 22장 17절에서 그 영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점에서 확증된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11)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2:29)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3:6)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3:13)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3:22)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14:13) 나는 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그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이 보상으로서 그들을 뒤따르기 때문이다.”

(계 22:17)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오십시오!’라고 말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다 생명수를 거저 받아 마시십시오.”

C. 다른 서신서들의 서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만 언급된다.

1.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수신자들에게 주어진다.
2.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는 그 영이 더 포함되어 그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교회들에게 분배된다.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3. 이것은 교회의 타락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그 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D. 일곱 영께서 교회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므로 교회들은 분명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E. 오늘날 우리는 일곱 배의 영, 강화되신 영, 회복의 영을 보고 체험해야 한다 — 계 1:4-5.

(계 1:4-5)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⁵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V.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들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죽음을 당하셨고, 자신의 피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 계 5:9.

A. 여기에서의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은 찬양받는 어린양께서 갓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B. 이기는 사자이시며 구속하는 어린양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그리스도는 이기는 사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탄을 패배시키셨다.
2. 그리스도는 구속하는 어린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죄를 없애셨다.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밝히시고 수행하실 자격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다.
4.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경륜의 비밀의 봉인들을 떼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자격의 이 방면은 우주적이며 헤아릴 수 없다.
5. 그리스도는 우리의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며,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자격이 있으시다.

메시지 5

생명나무

성경: 창 2:7-9, 계 2:4-5, 7, 22:2, 14, 고후 4:5, 5:14-15

- (창 2:7-9)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⁸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⁹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 (계 22:2) 강 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겹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 (고후 4: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I.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재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창 1:26-28, 31, 2:7-9)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이다(요 19:34, 롬 5:10, 계 22:1-2, 14, 19).

(창 1:26-28)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²⁷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²⁸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

(창 1:3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직접 만드신 모든 것이 참으로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창 2:7-9)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⁸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⁹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요 19:34) 군인들 중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계 22:1-2)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겹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계 22:19)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몫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A.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의 음식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의 체현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동화시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사람 존재의 조성 성분 자체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시사한다 — 골 2:9, 창 2:9, 요 1:4, 10:10, 14:6, 15:1, 6:35, 57, 63, 고전 15:45하.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였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요 1: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 10: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 14: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요 6: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고전 15:45하)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B.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한 토막의 목재인 나무로 암시되어 있음—벧전 2:24) 부활하신(하나님의 생명으로 암시되어 있음—요 11:25)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계 22:2, 14).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벧전 2:24)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어 상처 입으심으로써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요 11:25)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계 22:2)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II.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 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1.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오직 우리 안에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임을 보아야 한다 — 갈 1:16, 2:20, 4:19, 빌 1:19-21, 엡 4:13, 고후 3:18.

(갈 1: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갈 4: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빌 1:19-21)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²⁰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²¹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엡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2.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 영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B.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둘째 문제는 위선이다 — 마 6:2, 5, 7:5, 23:13-29.

(마 6:2) 그러므로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그대의 앞을 향하여 나팔을 불지 마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마 6:5) 또 여러분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마 7:5) 위선적인 사람들이여, 먼저 그대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십시오. 그 후에야 분명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 23:13-29) 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닫아 버리고는, 여러분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¹⁴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도 꾸며서 길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¹⁵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사람을 개종시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그를 여러분 자신보다 두 배나 악한 게헨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¹⁶눈먼 안내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¹⁷어리석고 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큼니까? 금입니까,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입니까? ¹⁸또 여러분은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¹⁹눈먼 사람 여러분, 어느 것이 더 큼니까? 예물입니까,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입니까? ²⁰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²¹또 성전을 두고 맹세하

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며, ²²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²³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박하와 아니스와 대회향의 십분의 일은 드리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긍휼과 신실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들을 반드시 행하고, 저것들도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²⁴눈먼 안내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살이는 걸러 내면서, 낙타는 삼킵니다! ²⁵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탈취와 무절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²⁶눈먼 바리새인 여러분, 먼저 잔과 접시의 속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²⁷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입니다. ²⁸여러분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합니다. ²⁹위선적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 여러분, 여러분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묘비를 장식하며

1. 사람의 영성은 밖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2.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에 커다란 방해물이다. 생명의 표현은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선호를 거절하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를 파쇄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과 관련된다.
3.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C.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셋째 문제는 반역이다.

1.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과 요구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움직이신다.
2. 그러나 우리가 내적인 느낌에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 반역이다.
3.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자 우리가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거나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신다 — 롬 8:6, 요일 2:27.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일 2:27) 여러분으로 말하면, 그분의 기름바름이 여러분 안에 거하니, 아무도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기름바름이 모든 것에 관하여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이 기름바름은 참되고 거짓되지 않으니,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D.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1.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도 얻지 못하신다.
2. 우리에게 역량과 은사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죄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을 멸시하기보다 매우 귀하게 여긴다.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 파쇄되지 않은 채로 우리 안에 남아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에 문제가 될 것이다.

E.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 마 16:24-25.

(마 16:24-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²⁵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Ⅲ.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 계 2:4-5, 골 1:18하, 고후 5:14-15, 막 12:30, 시 73:25-26, 80:17-19.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막 12:30)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 73:25-26)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²⁶제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도 / 하나님은 제 마음의 반석이시며 제 영원한 몫이십니다.

(시 80:17-19)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¹⁸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⁹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A.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 계 2:7, 요 6:57, 63.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B. 교회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곧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 계 2:4-5.

(계 2:4-5)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 ⁵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일을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C. 한 면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장차 올 천년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특별한 누림을 가리킨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D. 또 다른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 나무로, 곧 공급된 음식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미리 맛보며 누리고 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생명나무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E.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 나무로 온종일 계속해서 먹을 때,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한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우리의 느낌과 태도는 우리의 상태에 달려 있다.

F. “오늘날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분명 왕국 시대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나의 체험에 따르면, 오늘날 애너하임 교회는 나에게 낙원이다.” — 활력 그룹, 개정판, 11장, 179쪽.

G. 교회가 황폐하고 타락하게 되는 내재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복원과 부흥이 있다 — 시 80:17-19.

(시 80:17-19)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¹⁸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⁹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H.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도 반드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 고후 4:5, 비교 히 1:3, 8:1, 12:2, 시 80:1, 17-19, 110:1-7.

(히 1: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8:1)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히 12: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시 80:1) 요셉을 양 떼처럼 인도하시는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 기울여 주십시오. / 그룹들 사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시 80:17-19)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위에, / 주님께서 자신 위하여 강하게 하신 사람의 아들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¹⁸그리하시면 저희가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 저희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¹⁹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어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해 주십시오.

(시 110:1-7) 여호와께서 내 주님께 선포하셨습니다. / “내가 너의 원수들을 / 너의 발 받침대로 둘 때까지

지 /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²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 주님의 능력의 지휘봉을 보내시리니 /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십시오. ³주님의 전쟁의 날에 / 주님의 백성이 헌신의 광채 안에서 / 기꺼이 자신을 바치리니 / 주님의 청년들은 주님께 / 새벽의 태에서 나온 이슬과 같을 것입니다. ⁴여호와께서 맹세하셨으니 /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 “너는 뿔기세력의 계통에 따른 / 영원한 제사장이다.” ⁵주님께서 주님의 오른편에 계시어 /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실 것입니다. ⁶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을 집행하시어 / 시체로 그곳을 가득 채우시며 / 큰 땅의 머리를 / 쳐부수시리라. ⁷그분은 길가 시내에서 물을 마시시므로 / 그분의 머리를 드시리라.

1. 우리의 일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오게 이끌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을 보게 해야 한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게 해 드려야 한다 — 비교 아 1:1-4, 사 6:1, 3, 요 12:41.

(아 1:1-4) 솔로몬의 아가. ²“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 /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입니다. ³당신의 바르는 기름은 향기가 좋고 / 당신의 이름은 쏟은 관유 같아요. / 그리하기에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⁴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러갑니다— / 왕께서 나를 그분의 내실로 이끌어 들이셨으니— / 우리는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높이 찬양합니다. /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사 6:1) 옷시아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드리워져 있었다.

(사 6:3)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부르며 말하였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여라.”

(요 12:41) 이러한 말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하여 말한 것이었다.

2.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라는 사람이다 — 고후 4:10-13, 요 12:24-26, 비교 눅 12:49-50.

(고후 4:10-13)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을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¹이것은 살아 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¹²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합니다. ¹³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요 12:24-26)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²⁵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²⁶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눅 12:49-50)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⁵⁰그러나 나에게는 받아야 할 침례가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3. “잘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칭찬을 능가하고, 하늘의 미소 짓는 얼굴은 땅의 모든 화난 얼굴을 능가하며, 하늘의 위로는 땅의 모든 눈물을 능가한다 — 마 25:21, 23, 렘 1:7-9, 18-19, 단 4:26.

(마 25:21)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마 25: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렘 1:7-9)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 “저는 아이입니다.” 하지 마라. /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내든 너는 가야 하고 / 내가 무엇을 네게 명령하든 너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⁸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 주리라. 여호와와 선포이다.” ⁹그러시고 나서 여호와는 그분의 손을 뻗으시어 내 입에 대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 “이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렘 1:18-19) 이제 내가 오늘 너를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못 성벽으로 만들어 온 땅과 맞서게 하고, 유다 왕들과 맞서게 하며, 고관들과 맞서게 하고, 제사장들과 맞서게 하며, 그 땅의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¹⁹그들은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건져 낼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단 4:26) 그 나무의 뿌리등결은 남겨 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왕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I.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애정 어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이 되어, 우리가 그분의 온 존재를 체험하고 누린 것을 가지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쓸 준비가 될 것이다 — 시 45:1-2, 고후 3:3, 6.

(시 45:1-2)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²왕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수려하시며 / 입술에 은혜가 부어졌기에 / 하나님은 왕께 영원히 복을 내리셨습니다.

(고후 3: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계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J.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성(우리를 붙잡아 주는 중심)과 우리의 전부(우리의 모든 것)로 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과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 골 1:17하, 18하.

(골 1:17하)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골 1:18하)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K.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여호와와 조연을 구하는 것이다 — 시 27:4, 수 9:14, 빌 4:6-7.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와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수 9:1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와 조연을 구하지 않았다.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⁷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L.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면서, 주님의 포로가 되어 “주님, 저를 정복해 주십시오. 저를 당신의 포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기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항상 저를 패배시키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에 주의하는 것이다 — 고후 2:13-14.

(고후 2:13-14)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M.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두려운 수정 같은 맑은 하늘과 그 위에 하나님의 청옥 보좌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는 임재라는 하늘에 속한 분위기와 상태와 상황으로 충만한 것, 즉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 겔 1:22, 26.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N.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권을 돕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인데,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사 42:1-4).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이기는 성도들과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성도들을 통해 모든 세대에 걸쳐 기억되고 민족들에게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시 45:16-17, 계 2:26).

(사 42:1-4) “내가 붙드는 나의 종, / 내 혼이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이가 여기 있다. / 내가 나의 영을 그의 위에 두었고 / 그는 정의를 민족들에게 가져오리라. ²그는 외치지도 않고 그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 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³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 가까스로 타는 심지를 끄지 않으며 / 진리 안에서 정의를 가져오리라. ⁴땅에 정의를 확립할 때까지 / 그는 피곤하지도 낙담하지도 않으리니 / 해안 지역들이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리라.”

(시 45:16-17) 왕의 아들들이 왕의 조상들의 뒤를 이으며 / 왕은 그들을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¹⁷제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에 기억되게 할 것이기에 / 백성들이 왕을 영원무궁히 찬양할 것입니다.

(계 2: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O.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교두보로서, 주님은 이들을 통해 온 땅을 소유하시러 돌아오실 것이다 — 시 48:2, 단 2:34-35.

(시 48:2) 우뚝 솟아 아름다우며 / 온 땅의 기쁨인 / 복편 끝 시온산! / 이는 크신 왕의 성이라네.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P.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려라. /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 시리라. /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 ...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 만군의 여호와 /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 시 24:7-8, 10.

1. 성문들은 민족들의 성에 있는 것이고, 문들은 백성의 집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분(학 2:7)이시다. 일반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관념처럼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것이다(벧후

3:8-9). 따라서 우리는 머리를 들고, 오래 견디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
(학 2:7)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리니, 모든 민족이 갈망하는 이가 올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다.

(벧후 3:8-9)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 년과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모르는 척하지 마십시오. ⁹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여러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2. 영광의 왕은 만군(곧 군대들)의 여호와, 즉 승리하시고 계속 이기시는 그리스도 안에 체현 되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눅 21:27, 마 25:31). 여호와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싸움에 강하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다(마 1:21, 계 5:5).

(눅 21:27) 그때에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에 싸여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 25:31)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안에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마 1:21)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5: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뿜 수 있습니다.”

3. 그분은 부활 안에서 이기는 이들과 함께 다시 오시어 온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소유하실 분 이시다 — 단 2:34-35, 7:13-14, 욥 3:11, 계 11:15, 19:13-14.

(단 2:34-35) 왕께서 보고 계실 때,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 하나가 그 형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³⁵그러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일시에 부서져서 여 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친 돌 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습니다.

(단 7:13-14) 내가 밤의 이상들 가운데 살펴보니 / 하늘의 구름을 타고 /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오 시는데 /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와 /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¹⁴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욥 3:11) 주변의 너희 모든 민족들은 / 속히 와서 / 모여라.’ / “오, 여호와님! 주님의 용사들을 그곳 으로 내려오게 해 주십시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 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 습니다.

(계 19:13-14)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¹⁴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Q.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빛깔이 구속을 상징하는 붉은색인) 홍 옥수와 (그 빛깔이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짙은 녹색인) 벽옥 같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분의 보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리적인 구속과 유기 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의 온 존재를 받는 수혜자가 되어, 풍성한 생명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 과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된다 — 계 4:3, 21:10-11상, 롬 5:10.

(계 4: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 과 같았습니다.

(계 21:10-11상)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R.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에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누릴 권리를 갖는다 — 계 22:14, 2:7.

(계 22:14)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러 오심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짐

성경: 계 10:1-7, 11:15-18

(계 10:1-7)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²그분은 퍼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³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⁴일곱 천둥이 말하였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⁵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 위에서 계시는 그 천사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서 ⁶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⁷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에 신언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계 11:15-18)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¹⁶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¹⁷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¹⁸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닳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노에 신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I.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와 12장 10절은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계 11:15-18)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¹⁶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보좌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¹⁷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큰 능력을 가지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¹⁸민족들이 화를 내었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닳았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며, 주님의 노에 신언자들과 성도들과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땅을 파괴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계 12:10)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A.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 계 11:15.

1.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대환난이 끝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감될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은 이루어질 것이고(계 10:7), 또 다른 시대인 왕국 시대 곧 천년왕국이 시작될 것이다.

(계 10:7)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에 신언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2.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 후에 세상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 — 단 7:13-14, 2:44-45.

(단 7:13-14) 내가 밤의 이상들 가운데 살펴보니 / 하늘의 구름을 타고 /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오시는데 / 옛적부터 계신 분께 나아와 /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¹⁴그분께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져 /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그분을 섬기게 되었다. /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요 /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왕국이다.

(단 2:44-45)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들의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왕국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왕국은 이 모든 왕국을 부수어 끝내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⁴⁵왕께서 보신 대로 손을 대지 않고 떠 내어진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었으니, 위대한 하나님께서 후에 일어날 일을 왕께 알려 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분명하고 그 해몽은 믿을 만합니다.”

3. 여기에서 주님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킨다 — 계 22:5.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B. “오, 여호와님!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며 /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 애 5:19.

1.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그분의 보좌는 그분의 자애와 자비와 신실함보다 더 고귀하다 — 애 3:22-23.

(애 3:22-23) 여호와와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²³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2. 하나님의 자애와 자비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격과 그분의 통치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3.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위격 안에서 그리고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히 12:28, 계 22:3)인 그분의 통치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이다.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니 은혜를 지닙시다.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계 22: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II.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땅을 소유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본다.

(계 10:1-7)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²그분은 퍼진 작은 두루마리를 손에 들고 계셨으며,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³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분께서 외치시니 일곱 천둥이 제 소리를 내었습니다. ⁴일곱 천둥이 말하였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일곱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⁵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 위에 서 계시는 그 천사께서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드시고서 ⁶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⁷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천사가 바야흐로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노예 신언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A. 이 장에서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8장 3절과 18장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힘센 천사’(계 10:1)이시다.

(계 7:2)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시고 해 뜨는 데에서 올라오셨고, 그분은 땅과 바다를 망가뜨리는 권위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셨습니다.

(계 8:3) 다른 천사께서 오셔서, 금향로를 가지시고 제단 곁에 서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향을 받으셨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향을 보좌 앞에 있는 금향단에 드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 18:1)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큰 권위를 가진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계 10:1)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B. 요한은 다른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다 — 계 10:1상.

(계 10:1상)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1.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중이시다.
2. 이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아직 땅에 내려오시는 중이시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C. 그리스도는 ‘구름을 입고 계신다’ — 계 10:1.

(계 10:1)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1. 그분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이나 마태복음 24장 30절과 26장 64절에서처럼 아직 ‘구름을 타고’ 계신 것이 아니다.

(계 14:14)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마 24: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마 26:64)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대제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분에게 말합니다. 장차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2. ‘구름을 타고 계신 것’은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구름을 입고 계신 것’은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다.

3. 그분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언급된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보이기 전까지는,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하게 오실 것이다.

(계 1:7)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찢은 사람들도 볼 것이며, 그 땅의 모든 지파가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할 것입니다. 아멘.

(마 24:30)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4. 요한계시록 10장의 때에도 그리스도의 오심은 여전히 은밀할 것이다.
5.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4장 이전까지는 구름으로 싸여 계실 것이며, 14장에서 그분은 구름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오심은 공개적일 것이다.
6. 이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대환난 전에 오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D.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 계 10:1.

1. 여기서 무지개는 그리스도께서 땅을 심판하시고 땅을 소유하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땅에 관하여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가리킨다 — 창 9:8-17.

(창 9:8-17)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⁹“내가 이제 너희와 너희 뒤를 이를 씨와 나의 언약을 세운다. ¹⁰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곧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가축과 땅의 온갖 짐승 즉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인 땅의 온갖 동물과 나의 언약을 세운다. ¹¹내가 너희와 나의 언약을 세우니, 다시는 모든 육체가 홍수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홍수가 일어나서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¹²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시이다. ¹³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¹⁴내가 구름으로 땅 위를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¹⁵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육체를 지닌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세운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¹⁶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육체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온갖 살아 있는 동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¹⁷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시이다.”

2.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무지개를 주위에 두르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따라 심판을 집행하는 분이심을 가리킨다 — 계 4:2-3.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³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3.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제시한다.
4.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의미한다.
5. 하나님은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거나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인류의 일부를 보존하셔서 새 땅에서 민족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다 — 계 21:24, 26.

(계 21:24) 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계 21:26)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 E.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 계 10:1.

1.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실 무렵, 그분은 셋별과 같지 않으시고 해와 같으실 것이다. 셋별은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에 그분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2.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하며(출 19:18, 히 12:29), 그리스도는 이 거룩함에 따라 땅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계 10:1) 또 내가 보니, 다른 힘센 천사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계시며,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으시고, 얼굴은 해와 같으시며, 발은 불 기둥과 같으셨습니다.

(출 19:18) 시나이산 전체가 연기로 자욱하였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 연기가 가마의 연기처럼 올라갔고, 산 전체가 크게 뒤흔들렸다.

(히 12:29)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 F. “그분은 ...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시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시고서” — 계 10:2.

1.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디디시는 것은 그것들을 밟으시는 것이고, 그것들을 밟으시는 것은 그것들을 소유하시는 것이다 — 신 11:24, 수 1:3, 시 8:6-8.

(신 11:24) 여러분이 밭로 밟는 곳은 모두 여러분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그 강 곧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심지어 가장 먼 바다까지 여러분의 영토가 될 것입니다.

(수 1:3)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시 8:6-8)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 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두셨으니 ⁷곧 모든 양과 소와 / 들의 짐승들과 ⁸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 물속 길로 다니는 모든 것입니다.

2.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땅을 소유하시기 위해 내려오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고, 또 그분만이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으시다.

G. “사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 계 10:3.

1.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은 왕이 진노하는 것과 같다 — 잠 19:12, 20:2.
(잠 19:12) 왕의 진노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으나 / 그의 은총은 풀 위에 내린 이슬 같다.
(잠 20:2) 왕이 두렵기는 사자의 으르렁거림 같으니 / 그를 화나게 하는 이는 자기 생명을 해치는 죄를 짓는다.
2. 이것은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Ⅲ.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 계 10:7.

A. 아담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와 모세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밝혀졌고 드러났으므로 비밀이 전혀 없었다.

B.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더 이상 비밀이 없을 것이다.

C. 그리스도부터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의 시대, 곧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비밀이다.

1.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이 비밀의 시대의 시작으로 하여 하나의 비밀이다 — 딤후 3:16.

(딤후 3:16)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 a.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끌리셨다.
 - b. 아들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 전체가 육체가 되셨다. 따라서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전체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이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 골 2:2.
(골 2: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 a. 하나님은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 b.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체현과 정의와 설명이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와 관련된다.
 - c. 신격의 모든 충만은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하면, 삼일 하나님의 충만이 몸의 모습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 골 2:9.

(골 2: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3.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 엡 3:4-6.

(엡 3:4-6)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나의 이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⁵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 주지 않으셨지만,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신언자들에게 이처럼 분명하게 영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⁶이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몸의 지체들이 되며,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a.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b. 이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인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하나님의 증가인 몸을 산출함으로 하나님께서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시도록 하는 것이다.

c. 한 영인 그리스도와 교회는 위대한 비밀이다 — 엡 5:32.

(엡 5:32)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4. 천국(마 13:11)과 복음(엡 6:19)과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골 1:27)과 비밀의 시대의 종결인 장차 있을 성도들의 부활과 변형(고전 15:51-52)은 모두 비밀들이다.

(마 13: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엡 6:19) 또한 내가 입을 열 때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시오.

(골 1: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전 15:51-52)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는 잠들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변모는 될 것입니다. ⁵²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 될 것입니다.

5. 이러한 모든 비밀이 일곱째 나팔의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완성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지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과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

성경: 계 3:7-22

(계 3:7-22)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⁸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⁹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¹⁰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¹¹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¹²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¹³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¹⁴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¹⁵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¹⁶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¹⁷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¹⁸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¹⁹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²⁰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²¹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²²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I.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시다.

A.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무한하시고 생명을 해방하시고 일곱 배로 강화되신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각 서신의 처음에 일곱 교회 각각에게 하신 말씀(2:1, 8, 12, 18, 3:1, 7, 14)이, 각 서신의 끝에서는 일곱 배로 강화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계서 우주적으로 일곱 교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된다(2:7, 11, 17, 29, 3:6, 13, 22).

(계 2:1)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등잔 대 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8)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12)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18)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빛나는 놋쇠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한다.

(계 3: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계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3:14)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11)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는 결코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2:29)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3:6)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3:13)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계 3:22)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B. 이처럼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영, 곧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영이 되신다. 그리스도는 특정 지방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은 우주적인 몸에게 말씀하신다.

C. 이것은 그 영계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나오는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가리키듯이, 교회가 타락한 어둠의 때에는 그 영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계 1: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계서,

D.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서신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서신들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일곱 영계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 각 서신의 시작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특정 지방의 교회에게 하신 것이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그 영계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다.

E. 그 영의 말씀하심은 항상 우리를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입받게 한다. 그 영의 말씀하심은 그리스도의 주입하심이다 — 비교 고후 3:16-18.

(고후 3:16-18)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¹⁷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계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¹⁸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1.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즉시 보배롭고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옮겨 부으심, 주입하심을 받게 된다. 이러한 주입하심은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합당한 재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건축물로 건축되게 한다.

2. 불 못으로 가야 할 것들은 모두 일곱 등불로 태워 없어지며(계 4:5),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일곱 눈 아래 있으면서(5:6) 그리스도의 온 존재를 주입받고 있다.

(계 4: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계 5: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F. 교회들 안의 믿는 이들이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들을 귀를 갖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긴밀히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이들을 부르는 부름이 있는 것이다.

G.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이들은 들어야 하며, 듣는 이들은 이기는 이들이 될 것이다.

1.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 — 욥 33:14-16, 사 50:4-5, 출 21:6.

(욥 33:14-16)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한 가지 방식으로 / 아니 참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¹⁵(사람들이 침상에서 선잠을 자다 / 깊은 잠에 빠질 때 / 꿈속에서 그리고 밤의 환상 속에서) ¹⁶그분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 그들이 받은 가르침을 봉인하시는데

(사 50:4-5)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⁵주 여호와께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 돌아서지도 않았다.

(출 21:6) 그의 주인은 그를 하나님에게 데리고 와야 하며,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영원토록 그 주인을 섬겨야 한다.

2. 둔한 귀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 렘 6:10, 행 7:51.

(렘 6:10) “제가 누구에게 말하며 증언해야 / 그들이 듣겠습니까? / 참으로, 그들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아서 / 들을 수가 없습니다. / 보십시오, 여호와와 말씀은 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고 / 그들은 말씀을 조금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행 7: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여러분도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3. 죄인들의 귀는 구속하는 피로 정결하게 되고 그 영으로 기름 발라져야 한다 — 레 14:14, 17, 28.

(레 14:14)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 얼마를 가져다가,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야 한다.

(레 14:17) 그리고 나서 손바닥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 위에 발라야 한다.

(레 14:28) 그리고 나서 손바닥에 있는 기름 얼마를 정결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 위에 발라야 한다.

4. 제사장들로서 주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구속하는 피로 우리의 귀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 출 29:20, 레 8:23-24.

(출 29:20) 그런 다음에 그 숫양을 잡아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위와 그 주위에 뿌려라.

(레 8:23-24) 모세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 ²⁴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발랐다. 모세는 나머지 피를 제단 위와 그 주위에 뿌렸다.

5.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열리고 할례를 받고 정결하게 되고 기름 발라져야 한다.

H. 그 영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회사 가운데 있는 일곱 종류의 교회들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들은 초대 교회(에베소), 고난받는 교회(서머나), 세속적인 교회(버가모), 변절한 교회(두아디라), 개혁된 교회(사데),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라오디게아)이다.

1. 마지막 네 종류의 교회들은 모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2. 의심할 여지 없이, 회복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주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선택을 취해야 한다.
3.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로서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교만하다 — 계 3:14-17.

(계 3:14-17)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¹⁵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¹⁶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¹⁷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 a.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자신의 이전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 b. 우리가 빌라델비아의 길을 계속 가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 비교 계 3:7-22, 사 57:15, 66:1-2.

(계 3:7-22)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⁸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⁹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¹⁰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¹¹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¹²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¹³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¹⁴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¹⁵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¹⁶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¹⁷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¹⁸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¹⁹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²⁰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²¹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²²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사 57:15) 높고 드높으신 분, / 영원 안에 거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 또한 통회하는 이와 겸허한 영을 지닌 이들과 함께 거하여 / 겸허한 이의 영을 소생시키고 / 통회하는 이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사 66:1-2)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하늘은 나의 보좌요 /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집이 어디 있겠으며 /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²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러나 내가 이러

한 사람을 굽어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II. 회복된 교회(빌라델비아)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 집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집의 열쇠(보물 창고의 열쇠)가 어깨 위에 놓인 분으로 나타나신다 — 사 22:22, 계 3:7.

(사 22:22) 그리고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 위에 두리니 /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계 3: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A. 회복된 교회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 곧 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여닫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 주님은 한마음 한뜻인 회복된 교회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셨다 — 계 3:8, 비교 시 133편.

(계 3: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133편)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거하는 것이 / 얼마나 좋고 얼마나 즐거운가! ²머리 위의 좋은 기름이 / 수염을 타고 /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 그의 옷단에 흘러내림 같고, ³헤르몬의 이슬이 /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아라.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 영원한 생명이라.

B. 다윗의 열쇠는 우리가 흰 돌로 변화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 기둥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될 수 있는 문을 열어 준다 — 계 2:17, 3:12.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겐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3:12)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1.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고 새 예루살렘의 구성 요소가 되며 새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는 불가능을 해결하는 요소가 담겨 있다 — 롬 8:2, 계 3:7-13, 비교 창 28:12-19, 요 1:51.

(롬 8: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계 3:7-13)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⁸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⁹보아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¹⁰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닦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¹¹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¹²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¹³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창 28:12-19)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¹³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

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¹⁴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¹⁵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¹⁶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¹⁷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¹⁸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¹⁹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요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여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이 보물 창고 안에는 우리의 누림을 위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풍성이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풍성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과 닫으시는 것을 다 체험했다 — 엡 4:30, 살전 5:17, 요일 1:7, 9.

(엡 4:30)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구속의 날에 이르도록 도장 찍혔습니다.

(살전 5: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일 1: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 a.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생명의 감각에 따라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주님과와의 접촉 안에 계속 머물러야 하며,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 고후 2:10, 롬 8:6, 10:12–13, 골 3:16, 마 5:3, 8.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10:12–13)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¹³“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골 3:16) 온갖 지혜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은혜로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거하도록 하십시오.

(마 5:3)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 5:8)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 b. 보물인 주님의 풍성을 누리려면, 우리는 자아 부인과 십자가를 짐과 혼생명을 잃어버림이라는 열쇠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모두 ‘썩나’로서 그리스도에 의해 파면당하고 대치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해야 한다 — 사 22:15–19, 마 16:24–25.

(사 22:15–19)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 “일어나서 청지기에게 / 곧 왕궁을 관리하는 썩나에게 가서 말하여라. ¹⁶“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 너를 위하여 여기에 무덤을 파 두었느냐? / 높은 곳에 무덤을 파 둔 사람처럼 / 바위에 자기를 위한

안식처를 깎아 둔 사람처럼 말이다. ¹⁷용사야, 여호와께서 곧 너를 멀리 내던지신다. / 너를 단단히 묶으시고 ¹⁸너를 푼돌 말아 / 공처럼 넓은 땅으로 내던지시리라. / 거기서 네가 죽고,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들도 / 네 주인의 집의 수치가 되리라. ¹⁹나는 너를 네 직위에서 내쫓고 / 네 자리에서 끌어내리리라.’”

(마 16:24-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²⁵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Ⅲ.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정찬을 드실 분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그분께서 이기시고 나서 그분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으신 것과 같이 이기는 이들에게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도록 해 주실 분으로 나타나신다 — 계 3:20-21.

(계 3:20-21)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²¹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A.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계 3:20.

1.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시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2.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는 지식은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었다.
3.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1) 공허한 교리적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면에서는 몹시 빈약하기 때문에 비참하고, (2) 벌거벗고 눈멀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련하며, (3)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면과 하나님의 경륜의 영적인 실재 면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4) 진정한 영적인 일들을 보는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멀었으며, (5) 매일의 행함에서 주관적인 의, 곧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살지도 않기 때문에 벌거벗었다 — 계 3:15-17, 비교 시 45:1, 9-14.

(계 3:15-17)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¹⁶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¹⁷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시 45:1) 제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 /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해 드립니다. / 제 혀는 준비된 작가의 붓과 같습니다.

(시 45:9-14) 왕께서 가장 귀히 여기는 여인들 중에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으며 / 왕후는 오빌의 금을 두르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습니다. ¹⁰딸이여! 듣고서 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 그대의 백성과 그대 아버지의 집은 잊어버리십시오. ¹¹그리하면 왕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입니다. / 그분은 그대의 주님이시니 /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¹²두로의 딸이 선물을 가져오고 / 백성 가운데 부자들이 그대의 은총을 구할 것입니다. ¹³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더할 나위 없이 영광스러우니 / 그 여인의 옷은 금실을 넣어 짠 것입니다. ¹⁴그 여인은 수놓아진 옷을 입고 왕께로 이끌릴 것이고 / 그 여인을 뒤따르는 처녀들 곧 그 여인의 동료들도 / 왕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4.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의 처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며 주관적

인 문제여야 한다.

5. 주님과 함께 정찬을 먹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식사인 잔치 음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찬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산물을 먹은 예표의 성취라고 볼 수 있다 — 수 5:10-12.

(수 5:10-12)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쳤다. 그리고 그달 열나흘날 저녁에 여리고평원에서 유월절을 지냈다. ¹¹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무교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다. ¹²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만나가 없었고, 그들은 그해에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을 먹었다.

6. 생명나무와 감추어진 만나와 잔치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조성에 있어서 그분과 한 실체로 연합되어 새 예루살렘으로서 그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 계 2:7, 17, 3:20.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이다.’

(계 2:17)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새 이름이 적혀 있다.’

(계 3: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B.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 계 3:21.

1.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 눅 19:11-27, 마 25:21, 23.

(눅 19:11-27)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더 드셔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니,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¹²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 오래고 먼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¹³그가 자기 노예 열 명을 불러 그들에게 열 므나를 주며,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¹⁴그런데 그의 백성은 그를 미워하여, 그 나라로 대표를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게 하였습니다. ¹⁵그 후에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돈을 맡았던 노예들이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보려고 그 노예들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¹⁶첫 번째 노예가 나아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습니다.’라고 하니, ¹⁷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다. 착한 노예야, 네가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열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¹⁸두 번째 노예가 와서 ‘주인님, 주인님의 한 므나로 다섯 므나를 벌었습니다.’라고 하니, ¹⁹주인이 그에게도 말하였습니다. ‘다섯 도시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라.’ ²⁰또 한 노예가 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님의 한 므나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건에 싸 두고 있었습니다. ²¹주인님은 엄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인님은 맡기지 않으신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으신 것을 거두십니다.’라고 하니, ²²주인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노예야, 내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²³그렇다면 너는 왜 나의 돈을 은행에 맡겨 두었다가, 내가 왔을 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도록 하지 않았느냐?’ ²⁴그리고 주인이 옆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그 한 므나를 빼앗아 열 므나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하니, ²⁵그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그에게는 이미 열 므나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²⁶주인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있는 사람마다 더 받을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²⁷그리고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저 원수들은 이곳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마 25:21)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마 25: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2.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사람에게 일하시어 사람이 보좌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를 보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 계 2:26-27, 3:21, 22:5, 비교 사 14:12-14.

(계 2:26-27)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²⁷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사 14:12-14)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네가 /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¹³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 내 보좌를 높이리라. /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¹⁴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이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3.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주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셨다. 예수라는 이름의 참사람이 보좌에 계신다(겔 1:26). 이제 오늘날 하늘과 땅의 주님, 우주의 주님은 사람이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4. 주 예수님은 보좌에 이르는 길을 앞서가셨으며, 개척자이자 선구자로서(히 6:20, 2:6-9) 보좌에 이르는 길을 여셨다. 그분은 길을 여시고 앞장서 가심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히 2:10-12).

(히 6:20) 선구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에 들어가심으로써,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 2:6-9)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⁷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⁸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⁹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 2:10-12)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¹¹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¹²“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5. 지금 우리는 보좌를 향해 행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영광 안으로 이끌어 보좌에 앉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시며, 사람을 통해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탄을 내던지고, 사탄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간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여 그분의 보좌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고 왕들이 될 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위에 일하시어 우리에게 왕권을 얻을 자격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 롬 5:17, 21, 비교 겔 1:22, 26, 마 8:9.
 -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 (마 8:9)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라고 하면 합니다.”

사내아이, 하늘에서의 전쟁, 이기는 성도들

성경: 계 12:5, 7-11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2:7-11)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⁸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⁹큰 용, 곧 옛 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¹⁰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¹¹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I.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 계 12:5.

A. 여기에서 ‘낳았으며’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에서와 같이 부활을 의미한다.

(행 13:33-34)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들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이 편에 기록된 것과도 같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³⁴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게 하신 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1. 사내아이는 죽고 부활한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죽기까지’라는 말로 증명된다.

(계 12: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B. 성경에서 여자는 비교적 약한 이를 상징하고, 남자는 비교적 강한 이를 상징한다 — 벰전 3:7.

(벰전 3:7) 마찬가지로 남편 여러분, 지식에 따라 아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으로서,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이니,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1.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백성 중 더 강한 부분을 상징한다.

2. 사내아이가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린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과 27절에 언급된 대로 사내아이가 이기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계 2:26-27)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²⁷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C. 이끌려 올라가는 것은 휴거되는 것이다.

1. 사내아이의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언급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의 휴거와는 다르다.

(살전 4:17)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2.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대부분의 믿는 이들은 공중으로, 일곱째 나팔(계 11:15), 즉 마지막 나팔 때(고전 15:52, 살전 4:16)에 휴거된다.

(살전 4:17)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무궁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큰 음성이 있었습니다.

(고전 15:52)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모될 것입니다.

(살전 4:16) 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삼 년 반(마흔두 달, 계 12:14, 13:5, 11:2)의 대환난 기간인 천이백육십 일 전에 휴거되는데, 이 대환난은 다섯째 나팔이 불리기 전(9:1) 여섯째 봉인이 떼어질 때부터 시작된다.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2:14)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뱃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음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계 13:5) 그 짐승에게는 과장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이 주어졌으며,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계 11:2) 성전 밖에 있는 돌은 버려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II.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 계 12:7상.

A. 사내아이가 하늘로 휴거된 직후,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사탄과 전쟁을 시작한다.

1.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강한 부분인 사내아이가 항상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싸우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2. 사내아이는 쉬지 않고 땅에서 사탄과 싸워 왔다.
3. 하늘은 사내아이가 와서 전쟁을 수행하여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4. 성경은 두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이름을 제시한다.
5.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식을 가져다주는 보고자이고(단 8:16, 9:21-22, 눅 1:19, 26), 미가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전사이다(단 10:13, 21, 11:1, 12:1, 유 9).
(단 8:16) 나는 올래강 독 사이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부르시며 말씀하셨다.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이상을 이해하게 해 주어라.”
(단 9:21-22) 곧 기도로 아뢰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이상 가운데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예물을 바칠 즈음에 완전히 탈진하여 있는 나에게 이르렀다. ²²그가 나에게 말하며 알려 주었다. “다니엘이여, 나는 그대에게 통찰력과 이해력을 주려고 왔습니다.

(눅 1:19)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인데, 이 좋은 소식을 그대에게 전하라고 보냄받았습니다.

(눅 1:26) 그 후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아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동네에 가서,

(단 10:13)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으니, 이는 나 홀로 페르시아 왕들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10:21) 내가 진리의 책에 기록된 것을 그대에게 말해 주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들의 군주 미가엘 이외에는 나와 함께 강하게 그들과 대적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 11:1) 나는 메디아 사람 다리오 제일 년에 일어나서 그를 지지하며 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단 12:1) “그때 그대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서 있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고통의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그대 백성이 구출받되, 책에 기록된 이는 누구나 구출받을 것입니다.

(유 9)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거슬러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B.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계 12:7하). 이 천사들은 사탄을 추종하여 하나님께 반역한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 분명하다(마 25:41).

(마 25:41) 그 후에 왕이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불속으로 들어가거라.

C.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께 심판을 받았다 — 요 12:31, 16:11.

(요 12:31)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입니다.

(요 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 그 뒤를 이어 그러한 심판을 수행하고 그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기는 믿는 이들이 필요하다.
2. 이기는 믿는 이들이 사탄과 싸우는 전쟁은 사실상 사탄에게 주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다.
3. 결국 그 전쟁을 통해 사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질 것이다 — 계 12:7-9.

(계 12:7-9)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큰 용, 곧 옛 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Ⅲ.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마귀)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 계 12:10-11.

A.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1.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 요일 1:7.

(요일 1: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2. 우리가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도 유죄판결 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 이런 느낌은 모두 하나님의 빛 비춤이 아니라 사탄의 비난이다 — 요일 1:9.
(요일 1: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3. 우리는 이유 없는 비난들을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이유 있는 모든 비난도 거절해야 한다.
4.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지만, 보배로운 피를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한층 더 욕되게 하는 것이다 — 마 26:28, 비교 히 10:29.
(마 26:28) 이것은 죄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쏟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히 10: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5. 우리는 항상 피를 적용하며 마귀에게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보배로운 피 아래 있다고 말해야 한다 — 벰전 1:18-19, 행 20:28.
(벰전 1:18-19)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¹⁹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행 20:28) 성령께서 여러분을 온 양 떼의 감독들로 세우셨으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온 양 떼를 위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 오신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십시오.

B. 그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1. ‘증언’은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뜻하고, ‘증언하는 말’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다.
2. 이기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자주 선포하며, 마귀가 주님께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증언해야 한다 — 요일 3:8, 히 2:14.
(요일 3:8) 죄짓는 것을 일삼는 사람은 마귀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에게서 나온 일을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히 2:14)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졌으므로, 그분 자신도 같은 모양으로 피와 살에 참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3. 사탄은 우리가 그와 시비를 따질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영적인 사실들을 선포할 때 두려워한다 — 비교 대하 20:20-22.
(대하 20:20-22)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드고아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밋이 서서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분의 신언자들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할 것입니다.” ²¹여호사밋은 백성과 상의하고 나서 사람들을 세워, 거룩한 의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면서 여호와께 노래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의 자애 영원하심이라.” ²²사람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기 시작하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나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 a.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사탄에게도 믿음으로 선언해야 하는 영적인 사실이다 — 빌 2:9-11, 고전 12:3하.
(빌 2:9-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¹⁰하늘에 있는 이들과 땅에 있는 이들과 땅 아래 있는 이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도록 하시고, ¹¹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여 하나

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고전 12:3하) 성령 안에 있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 b.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사탄은 그분의 발아래 짓밟혔다는 것을 사탄과 그의 귀신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 창 3:15, 요 14:30하, 롬 16:20.

(창 3:15) 또한 내가 너를 여자와 / 원수가 되게 하고 /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 여자의 씨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요 14:30하) 그러나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롬 16:20)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러분의 발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C.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1.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자신을 사람의 혼생명, 곧 사람의 자아와 결합시켰다.

따라서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혼생명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한다 — 마 16:23-24, 눅 14:26, 9:23.

(마 16:23-24)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²⁴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눅 14: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사람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혼생명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 a.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행동하고, 우리 혼의 능력 곧 우리의 타고난 역량으로 우리 자신 안에서 움직이기를 원한다.

- b. 타고난 역량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운행으로 한 번도 처리받은 적이 없는 역량이다.

- c. 교회의 실패는 사람이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가져오는 것에 기인한다.

- d.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의 타고난 힘과 역량을 처리함으로, 모세나 베드로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감히 스스로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 행 7:23-30, 눅 22:32-34, 벰전 5:5-6.

(행 7:23-30) 그가 사십 세가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²⁴그는 동족 중 한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변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 학대받던 사람의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²⁵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²⁶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우고 있을 때, 모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여러분, 그대들은 형제들인데, 왜 서로에게 부당하게 행합니까?’라고 하니, ²⁷자기 이웃에게 부당하게 행하던 사람이 모세를 밀어내며 말하였습니다. ‘누가 그대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²⁸그대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²⁹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채류자가 되었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³⁰사십 년이 찼을 때, 한 천사가 시나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눅 22:32-34) 그대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대를 두고 간구하였으니, 그대가 다시 돌아오거든, 그대의 형제들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³³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

옥에라도 가고 죽기까지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자, ³⁴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여,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그대가 나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 할 것입니다.”

(벧전 5:5-6)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⁶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 e.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자아에 의해 살지 않겠다는 태도, 우리 자신의 역량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 고전 2:2-4, 빌 3:3, 비교 사 11:2하.

(고전 2:2-4)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³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⁴내가 나의 말과 선포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영광 능력을 나타내면서 한 것은

(빌 3:3)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된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 11:2하) 조언과 능력의 영 / 지식의 영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2. 우리는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포도주가 되게 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전제물 곧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 빌 2:17, 딤후 4:6, 샅 9:13.

(빌 2: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딤후 4: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샅 9:13) 그러나 포도나무는 이렇게 대답하였소. ‘나더러 하나님과 사람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새 포도주를 내는 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건들거리란 말이오?’

- a. 전제물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참포도주로 부어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출 29:40-41.

(출 29:40-41) 어린양 한 마리를 바칠 때에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와 짙어 짙 기름 사분의 일 힌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사분의 일 힌을 전제물로 바쳐라. ⁴¹어스름한 저녁에 다른 어린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물과 전제물을 함께 바쳐라. 이것은 여호와를 만족시키는 향기 곧 여호와에게 바치는 화제물이다.

- b. 사도 바울은 믿는 이들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부어진 전제물이 되었다 — 빌 2:17, 딤후 4:6.

(빌 2: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딤후 4: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 c. 전제물은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부어질 때까지, 하늘에 속한 포도주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 마 9:17, 빌 2:17, 딤후 4:6. (마 9:17) 또한 그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습니다. 만약 넣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됩니다.”

(빌 2:17)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내가 전제물로 부어지더라도, 나는 기뻐하며,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합니다.

(딤후 4:6) 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기는 첫 열매들이 따르는 어린양

성경: 계 14:1-5, 창 5:22-24, 히 11:5-6, 마 24:45-51

(계 14:1-5)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²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³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⁴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⁵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창 5:22-24)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다음,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²³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²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⁶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마 24:45-51)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체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⁴⁶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⁴⁷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⁴⁸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⁴⁹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⁵⁰에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⁵¹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I.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첫 열매들이 따르는 어린양이심을 계시한다.

(계 14:1-5)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²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³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⁴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⁵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A. 첫 열매들은 살아 있는 이기는 이들로써 하나님의 밭에서 처음 익은 이들일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수확기 전에 거두어져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러질 것이다.

1. 첫 열매들은 하늘에 속한 시온산으로, 곧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장소로 이끌려 올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2.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날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 — 눅 21:36, 고후 2:10, 호 6:2, 딤후 4:8, 행 26:16.

(눅 21:36)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고후 2:10)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누구를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서 용서했다

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용서한 것인데,

(호 6:2) 그분께서 이를 뒤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 제삼 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리라.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행 26: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3. 휴거는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한 것이다. 주님은 그분의 원수와 싸울 사내아이가 필요하시지만, 그분의 만족과 누림을 위해 첫 열매들을 더욱더 필요로 하신다 — 계 12:5, 14:1, 4하.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 14:4하)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리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 B. 성경은 휴거의 두 방안을 제시하는데, 바로 대환난 전의 이기는 이들의 휴거와 대환난 끝의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이다 — 마 24:40-41, 눅 21:36, 계 3:10, 살전 4:15-17, 계 12:5, 14:1.

(마 24:40-41)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¹두 여자가 밧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눅 21:36)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계 3:10)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

(살전 4:15-17)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든 이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¹⁶왜냐하면 주님께서 큰 명령 소리와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¹⁷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C. 레위기 23장 10절에서 우리는 휴거의 한 유형, 곧 밭에서 익은 수확물의 휴거를 본다 — 마 13:24, 계 14:14-16.

(레 23: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마 13:24)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계 14:14-16)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 ¹⁵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¹⁶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1. 하나님의 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 부른다. 이러한 수확은 믿는 이들이 땅에서 이끌려 올라갈 것임을 가리킨다 — 마 13:30, 39하.

(마 13:30) 둘 다 수확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거두는 이들에게 일러서, 가라지는 먼저 모아 단으로 묶어 불사르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들이라 할 것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마 13:39하) 수확 때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이고, 거두는 이들은 천사들입니다.

2. 작물의 일부인 첫 열매들은 더 일찍 익고 더 일찍 수확되지만, 작물의 나머지 수확물은 더 늦게 익고 더 늦게 수확된다.
3. 요한계시록 14장에 따르면 두 종류의 휴거가 있는데, 바로 첫 열매들의 휴거와 수확물의 휴거이다 — 계 14:4하, 14-16.

(계 14:4하)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리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

(계 14:14-16)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었고, 그 구름 위에는 사람의 아들과 같은 분께서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시고 앉아 계셨습니다.¹⁵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낫을 대시어 곡식을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¹⁶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시니,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 D. 첫 열매들은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휴거되어 하나님께 신성한 누림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다 — 출 23:19상, 레 23:10, 비교 요 20:17상.

(출 23:19상) 너는 너의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레 23:10)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거두어들일 때, 너희 수확물 중 첫 열매의 곡식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요 20:17상)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마십시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E. 첫 열매들은 그들의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그들이 어린양과 아버지와 하나 되었고 그분들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계 14:1하.

(계 14:1하)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 F. 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작물 중에서 가장 일찍 성숙에 이른 것이다 — 히 5:14-6:1, 고전 2:6, 엡 4:13, 빌 3:15.

(히 5:14-6:1)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합니다.⁶¹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우리는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고전 2:6)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의 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사람들 곧 이 시대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엡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빌 3:15) 그러므로 누구든지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

편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계시하실 것입니다.

1.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바뀌는 것이지만, 성숙되는 것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신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다 — 롬 12:2, 엡 3:19하.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엡 3:19하)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서는 성숙이 필요하다. 성숙한 생명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창 1:26, 롬 5:10, 17, 21.
(창 1:26)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롬 5:10)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미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 안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II. 우리가 어린양을 따라가며 성숙에 이르러 첫 열매들이 되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증거를 지녀야 한다.

A. 죽음을 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증거를 지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 창 5:22-24, 히 11:5-6.

(창 5:22-24)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다음,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딸을 더 낳았다. ²³에녹은 모두 삼백육십오 년을 살았다. ²⁴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⁶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고, 주재넘지 않으며, 자신의 관념이나 갈망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 시대의 조류를 따라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 비교 시 19:12-13, 수 9:14하, 눅 24:15.
(시 19:12-13) 누가 자기 과실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 숨겨진 잘못들에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¹³또한 이 중을 주재넘은 죄들에서 지켜 주시어 / 그 죄들이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그리하시면 제가 나무랄 데 없게 되고 / 큰 잘못에서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수 9:14하)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눅 24:15)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2.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따

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살고 일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 롬 8:4, 13-14, 갈 2:2상, 고후 5:14-15.

(롬 8: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롬 8:13-14)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¹⁴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갈 2:2상) 내가 올라간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것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¹⁵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을 향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을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의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인 죽지 않는 생명에 의해 사는 것이다 — 고후 5:4, 9.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5:9) 그러므로 우리는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떠나서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는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4.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습관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접촉하며, 끊임 없이 그분을 주입받는 것이다 — 요일 1:3, 빌 4:6, 고후 3:16, 18.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교통을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통은 아버지와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 4: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고후 3: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5.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복되신 삼일성을 누리는 것이다 — 유 14, 19-21.

(유 14) 아담의 칠 대손 에녹도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분의 수많은 거룩한 이들과 함께 오셔서,

(유 19-21)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²⁰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²¹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십시오.

6.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 자아와 우리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함축한다 — 마 16:24-25, 고후 2:13-14.

(마 16:24-25)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²⁵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구하고자 하

면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혼생명을 잃으면 혼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후 2:13-14)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으므로 내 영 안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¹⁴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B.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 고후 5:7, 히 11:5-6.

(고후 5:7)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 11:5-6)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⁶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을 뜻한다 — 히 11:1-2, 6, 고후 4:13, 18.

(히 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질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²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에 있어서 좋은 증거를 지녔습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후 4:13) 또한 성경에 "나는 믿었기에 말하였다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졌으므로 우리 역시 믿고 말합니다.

(고후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a.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해 드릴 수 없다 — 히 11:6상.

(히 11:6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b.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시고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님을 믿는 것이다 — 요 8:58, 전 1:2.

(요 8:5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나는 -이다'입니다."라고 하시니,

(전 1:2) 전도자가 말한다. "허무 중의 허무, / 허무 중의 허무라. 모든 것이 허무여라."

c.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홀로 유일한 분이셔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아니어야 한다 — 창 5:24, 히 11:5.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히 11:5)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다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d. 하나님께서 '-이다'이심을 믿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다. 온 우주에서 그분만이 '-이다'이시고,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다 — 눅 9:23.

(눅 9:23) 또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e. 나는 그 어떤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존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분만이 존재하셔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 갈 2:20.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f. 주님은 다소의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에게 “나는 … 예수다.”라고 말씀하셨다 — 행 9:5.

(행 9:5)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1) 주님은 “나는 위대한 ‘-이다’이다. 나는 ‘-이다’이다. 너는 내가 ‘-이다’이고 너는 ‘아니다’임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2) 결국, 사울은 끝났고 바울이 등장했다 — 행 13:9.

(행 13:9) 그러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일하여 그를 꿰어지게 보면서 말하였다.

g. 믿음은 이것이다—“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영광 안에 계신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기에서 그분의 권익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이 기쁨이여!” — 존 넬슨 다비.

2.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 — 히 11:6, 창 15:1, 빌 3:8, 14.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이시다’라는 것과 그분은 그분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창 15:1)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여호와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였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빌 3: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 3: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a. 에녹이 받은 보상은 생명의 가장 높은 단계, 곧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 히 11:5상, 고후 5:4, 롬 8:6, 10-11, 5:17.

(히 11:5상)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고후 5:4) 또한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은 벗어 버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옷 입고 싶어서인데,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롬 8:6) 육체에 둔 생각은 죽음이지만,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롬 8:10-1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11 또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b. 주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 시 27:4,

8, 42:1-2, 43:4, 73:25, 119:2, 10.

(시 27:4) 내가 여호와께 청하여 온 한 가지 / 그것을 구하리니 / 내 평생에 /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주하며 / 여호와와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는 것이라네.

(시 27:8)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에 / 제 마음으로 주님께 ‘오, 여호와님!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시 42:1-2) 사슴이 시냇물을 / 찾아 혈떡이듯이 / 오, 하나님! / 제 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²제 혼이 하나님을,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하는데 / 저는 언제나 가서 /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시 43:4) 그리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 저의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 오, 하나님, 저의 하나님! / 저는 수금 타며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시 73:25) 하늘에 주님 외에 누가 제게 있겠습니까? / 땅에서도 주님 외에 바랄 것 없습니다.

(시 119:2) 그분의 증거들을 지키는 이들, /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은 복이 있다네.

(시 119:10) 제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으니 / 주님의 계명들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C. 첫 번째로 휴거된 사람인 에녹은 살아 있는 동안 휴거될 모든 이기는 이들을 대표한다 — 마 24:37-51, 계 14:1, 눅 21:34-36.

(마 24:37-51)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 ³⁸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으며 ³⁹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때까지 심판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⁴⁰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¹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 ⁴²그러므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⁴³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⁴⁴이러므로 여러분도 예비하고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⁴⁵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⁴⁶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⁴⁷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⁴⁸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⁴⁹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⁵⁰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⁵¹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계 14:1) 또 내가 보니,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눅 21:34-36)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빛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³⁵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³⁶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1. 우리가 휴거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숙되는 것에 달려 있다 — 히 6:1상.

(히 6:1상)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초보적인 말씀에 머물지 말고, 성숙에 이르도록 전진합시다.

2. 에녹은 삼백 년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 올라가서, 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하나 되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 창 5:24, 비교 아 8:5상.

(창 5: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므로 그가 있지 않았다.

(아 8:5상)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Ⅲ. 어린양을 따라가며 성숙에 이르러 첫 열매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맡기신 봉사를 신실히 수행하여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이신 하나님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는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상으로 얻을 수 있다 — 마 24:45-51.

(마 24:45-51)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⁴⁶주인이 와서 노예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노예는 복이 있습니다. ⁴⁷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⁴⁸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⁴⁹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⁵⁰예기치 않은 날, 알아채지 못하는 시각에 그 노예의 주인이 와서, ⁵¹그를 엄하게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A. 하나님은 가정이 있으시고 가정 관리 곧 경륜을 갖고 계시는데, 이 경륜은 그분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집안 식구들에게 그분 자신을 양식으로 분배하시는 것이다 — 딤후 1:4, 3:15, 엡 2:19.

(딤후 1:4) 또 꾸며 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딤후 3: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엡 2:19)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와 체류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B. 하나님은 그분의 가정에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들을 가정 관리자, 청지기, 공급의 통로로 세우셔서 그분의 백성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셨다 — 마 24:45, 고전 9:17, 엡 3:2, 고전 4:1, 벧전 4:10, 빌 1:25.

(마 24: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전 9:17)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하지 않는다 해도, 나에게 이미 청지기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엡 3:2) 여러분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전 4:1) 이와 같이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들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들로 여겨야 합니다.

(벧전 4:10)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은사를 공급하십시오.

(빌 1:25)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속 남아 있어야 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C. ‘집안 식구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생명 공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교회 안의 믿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양식으로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체현되시고 실재화되신다 — 요 6:57, 63, 68, 행 5:20.

(요 6: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요 6: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요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 5:20) “여러분은 가십시오. 그리고 성전 안에 서시어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십시오.” 라고 하니,

1.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주님을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맛보고 누리야 한다 — 엡 6:17-18, 시 119:15, 겔 3:1-4.

(엡 6:17-18)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¹⁸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시 119:15) 저는 주님의 법도들을 읊조리며 / 주님의 길들을 존중하렵니다.

(겔 3:1-4)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네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여라.” ²그래서 내가 입을 벌리자, 그분은 나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주셨다. ³그러시고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너의 배를 불리고 너의 속부분들을 채워라.” 내가 그것을 먹으니, 내 입에 그 달콤함이 꿀과 같았다. ⁴그분은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집에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2.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사역에 전념해야 한다 — 행 6:4, 고후 3:6, 8, 요 7:37-39, 비교 히 7:25, 8:2.

(행 6: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고후 3: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후 3:8) 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요 7:37-39)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시어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³⁸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³⁹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히 7:25)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히 8:2)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 D.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현시대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다 — 마 24:48, 딤후 4:8, 10, 비교 행 26:16.

(마 24:48) 그러나 그 악한 노예가 마음속으로 ‘나의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다.’라고 하며,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딤후 4:10) 데마는 현시대를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행 26: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 줄 일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 우리는 반드시 탐심을 주의하여, 우리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해야 한다 — 눅 12:15-20, 고후 6:10, 엡 3:8.

(눅 12:15-20)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것

은 사람의 생명이 자기 소유의 넉넉한 데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¹⁶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성히 수확하게 되자, ¹⁷속으로 ‘내가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하며 골똘히 생각하다가 ¹⁸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겠다. ¹⁹그리고 내 혼에게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라고 말해야겠다.’²⁰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에게서 너의 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해 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고후 6:10) 슬퍼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엡 3: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2. “룻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는 믿는 이들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이다 — 눅 17:31-32, 비교 롬 1:21, 25.

(눅 17:31-32)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살림살이가 집 안에 있더라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³²룻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롬 1:21)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하는 것들이 허망하여지고 깨달음 없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롬 1: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맞바꾸고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지만,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3.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덧과 같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반드시 깨어서 간구해야 한다 — 눅 21:34-36, 비교 마 2:3.

(눅 21:34-36)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덧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³⁵왜냐하면 그날이 온 지면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³⁶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마 2:3) 헤롯왕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도 그러하였다.

E. 우리의 동료 노예들을 때리는 것은 동료 믿는 이들을 학대하는 것이다 — 마 24:49상, 18:3-7, 행 9:4.

(마 24:49상) 동료 노예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마 18:3-7)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⁴그러므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⁵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⁶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습니다. ⁷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는 화가 있습니다.

(행 9:4)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음성 이 들렸다.

1.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을 판단하거나 유죄판결 하지 말고, 그들을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그들을 용서해야 한다 — 눅 6:37, 엡 4:31-32.

(눅 6:37)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유죄판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결코 유죄판결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엡 4:31-32) 여러분은 온갖 독설과 화와 격분과 소란과 모독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³²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2.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고, 우리 자신보다 그들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 — 고전 6:10, 빌 2:2-3, 29.

(고전 6:10)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욕하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빌 2:2-3)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³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빌 2:29) 그러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a. 형제를 헐뜯는 것은 폭언으로 모질게 그를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이다 — 비교 눅 17:2. (눅 17:2)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맷돌을 그 목에 매단 채 바닷속에 내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b. 헐뜯는 말을 받아 주는 사람들은 헐뜯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책임이 있다. 그러한 말은 몸을 손상한다.

c.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권위를 맡기지 않으실 것이다.

3. 우리는 동료 믿는 이들 위에 군림하지 말고 노예로서 그들을 섬겨,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 벰전 5:3, 마 20:25-28.

(벰전 5:3)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람들 위에 군림하듯 하지 말고, 양 떼의 본이 되십시오.

(마 20:25-28)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²⁶그러나 여러분 사이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크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하고, ²⁷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²⁸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려고 온 것입니다.”

a.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성도들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거나 성도들에게 어디로 이주하라고 말함으로 그들의 삶에서 주님을 대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의 권위와 지배 권위를 모독하는 것이다.

b.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며 몸 안에서 합당한 교통을 가지도록 격려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큰 모독이 된다!

F.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들로 취해 있는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 마 24:49하, 비교 엡 5:18.

(마 24:49하) 술꾼들과 어울려 먹고 마신다면,

(엡 5:18)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는 것은 사람을 방탕하게 합니다. 다만 영 안에서 충만해지십시오.

1. 믿는 이들은 신성한 본성과 거룩한 위치가 있으므로, 믿지 않는 이들과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혼이나 사업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사이의 모

든 친밀한 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 고후 6:14, 고전 15:33, 비교 잠 13:20.

(고후 6:14) 믿지 않는 이들과는 같지 않으므로 멍에를 함께 메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으며,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고전 15:33) 미혹되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과 사귀는 것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잠 13:20)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이는 지혜로워지나 /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는 이는 곤경에 빠진다.

2. 우리는 반드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

(딤후 2: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와 모든 왕의 왕이시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계 20:1-6, 19:11-16, 19-21

(계 20:1-6)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²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 ³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⁴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⁵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⁶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19:11-16)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시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¹²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¹³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¹⁴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¹⁵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¹⁶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 19:19-21)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²⁰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들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고, ²¹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I. 그리스도는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 계 20:1-6.

(계 20:1-6)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이 있었습니다. ²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 ³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⁴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⁵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⁶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 A. 그리스도는 그분의 원수들과 싸우신 후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곧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 계 20:2.
(계 20:2)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
- B. 온 땅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준비가 되기 위해 반드시 정화되어야 한다.
- C.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사탄이다.
- D. 천년왕국에 관한 장인 요한계시록 20장에 처음 언급된 내용은 사탄을 결박하는 것이다.

1.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은 아직 완전히 집행되지 않았다.
 2.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심판을 사탄에게 완전히 집행하실 것이다.
 3. 사탄은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져서, 활동하거나 그 누구도 해할 힘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때 이 땅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 E.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천년왕국에는 두 부분이 있는데, 바로 하늘에 속한 윗부분과 땅에 속한 아랫부분이다.
1. 천년왕국의 윗부분은 아버지의 왕국이라 불리고(마 13:43), 아랫부분은 사람의 아들의 왕국이라 불린다(41절).
 (마 13:43) 그때에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마 13:41)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2. 메시아의 왕국은 천년왕국의 아랫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 F.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는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임을 제시한다.
- (계 20:4-6)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⁵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⁶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1. 이기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때문에, 주님은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고 이기는 이들 또한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2.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라고 말한다.
 - a. 이 ‘사람들’은 이기는 이들을 가리킨다.
 - b. 그들은 이제 보좌 위에 앉아 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 1) 심판하는 권위를 갖는 것은 왕국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 비교 단 7:10, 18, 22.
 (단 7:10) 불 시내가 흘러 / 그분 앞에서 나오고 / 그분을 섬기는 이가 천천이며 / 그분 앞에 선 이가 만만이었다. / 심판의 법정이 열리고 / 책들이 펴졌다.
 (단 7:18)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왕국을 받을 것이며, 영원히 참으로 영원무궁히 그 왕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단 7:22)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시어,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위해 심판을 내리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하였다.
 - 2)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그들이 왕국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계 20:4)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

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G.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자격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 그들 안으로 일해 넣어졌기 때문이다 — 계 2:26.

(계 2:26)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H.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이기는 이들은 최상의 부활을 누릴 것이다.

1.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첫째 부활’을 언급한다.

(계 20: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 첫째 부활은 또한 ‘뛰어난 부활’, 곧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탁월한 부활이다 — 빌 3:11.

(빌 3: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I. 요한계시록 20장 6절 상반절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라고 말한다. 이 복은 틀림없이 최고의 복, 곧 땅에 나타난 왕국을 상속받고 더 나아가 그 왕국 안에서 왕들이 되는 복이다.

J.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계 20:6하) 이기는 이들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제사장들이 될 것이며, 또한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될 것이다(계 2:26–27, 12:5).

(계 2:26–27)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²⁷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계 12:5) 그 여자가 아들, 곧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II.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와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왕의 왕이시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신다.

(계 19:11–16) 또 나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¹²그분의 눈은 불꽃이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그분께 쓰여 있으며, ¹³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¹⁴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서 그분을 따랐습니다. ¹⁵그분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것은 민족들을 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실 것이며,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¹⁶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계 19:19–21)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²⁰짐승이 붙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신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신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한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자입니다. 이 둘은 유황으로 불타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졌고, ²¹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죽었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습니다.

A. 결혼 잔치(계 19:7) 후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인 그분의 신부, 곧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싸우는 장군으로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싸우실 것이다. 사람이 모든 왕의 왕, 모든 주인의 주님께 맞서 전쟁을 벌이기까지 할 것이다.

(계 19: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1.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와 열 왕과 그들의 군대들이 어린양께 맞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2. 이 전쟁은 땅이 하늘들에 맞서고, 사람이 하나님께 맞서는 싸움일 것이다.
3.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그리스도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할 것이다.
4. 사람이 실지로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5. 신랑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그들과 맞서 싸우실 것이다.

B. “보십시오, 흰색 말이 있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다고 불리는 분께서 그 위에 타셨는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하시는 분이십니다.” — 계 19:11.

1. ‘신실하시고 참되시다’는 그리스도의 칭호일 것이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그분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신실하시다.
3. 그분은 이렇게 신실하신 것에 근거하시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패배시키시고 멸망시키신다.
4.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는 면과 믿는 이들을 돌보시는 면에서도 참된 분이시다.

C.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으로서 흰색 말을 타시고 의로 심판하시며 전쟁하신다.

1. 그리스도는 돌아오셔서 사탄의 불의한 권세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 이 불의한 권세는 오늘날 불법의 비밀로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로 귀결될 것이다 — 살후 2:3, 7-8.

(살후 2:3)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기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후 2:7-8)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할 것입니다. ⁸그때에 그 불법자가 나타날 것이며,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직접 오시어 나타나심으로써 그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2. 온 세상은 사탄의 불의한 권세 아래 있다.
3. 그리스도는 돌아오시어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동반자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맞서 의로 전쟁을 벌이실 것이다.
4. 그리스도는 의로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의로 싸우신다. 그분은 싸우심으로써 심판하신다.

D.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 계 19:13하.

1. 이것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2.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표현과 증거와 말씀하심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다.
4.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읽고 연구하고 주목하고 숙고하고

응시해야 한다.

E.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반역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신다.

1. 주님은 싸우실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표현하신다.
2.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주권적이시다. 그분은 또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러한 분으로서 무질서와 반역을 용인하실 수 없다.
3. 그리스도는 원수와 맞서 싸우실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고 의로우시며 질서 있으시다고 말씀하실 것이다.
4.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권위에 맞서는 반역을 용인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실 것이다.
5. 전사이신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께서 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다.
6. 아마겟돈에서의 전쟁에서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다.
 - a. 이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신언자와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이시며 누구도 그분께 반역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것이다.
 - b. 질서의 하나님은 모든 반역을 쓸어버리실 것이다.

III. 그리스도는 땅을 소유하신 후에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땅을 통치하실 것이며, 그분의 이기는 믿는 이들과 함께 민족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 계 20:4, 6, 2:26-27.

(계 20:4)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계 20:6)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26-27) 이기는 이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이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줄 것이다. ²⁷그는 질그릇들을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처럼 권위를 줄 것이다.

A. 장차 오실 왕이신 그분은 다가올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머리와 중심이실 것이다.

B. 이것은 이사야서 32장 1절과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스가랴서 14장 9절과 17절의 성취일 것이다.
(사 32:1) 참으로 한 왕께서 의에 따라 통치하시고 / 통치자들이 정의에 따라 다스리리라.

(렘 23:5) 참으로 그날들이 오고 있다. / 여호와와 선포이다. /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한 순을 일으키리니 /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고 현명하게 행하며 / 땅에서 정의와 의를 집행하리라.

(슥 14:9)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한 분 하나님이실 것이며 그분의 이름만이 하나의 이름일 것이다.

(슥 14:17) 땅의 어떤 족속이든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C. 그리스도는 땅과 그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골 1:20) 왕국의 영역과 왕국의 구성 요소가 되게 하셨으며, 모든 것을 팔아 왕국을 사셨고(마 13:44), 땅과 그 모든 백성들을 사탄의 강탈에서 구출하셨다(계 20:2-3).

(골 1: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마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샅니다.

(계 20:2-3) 그 천사는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을 잡아 결박하여서, 천 년 동안³무저갱에 던져 넣고 가둔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차기까지는 더 이상 민족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D. 그리스도는 복원된 땅과 복원된 민족들의 왕이 되실 완전한 권리를 가지실 것이다.

E. 다가오는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완전히 나타날 것이고(마 6:13), 온 땅과 그 백성들은 의와 평안과 기쁨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속한 완전한 축복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사 32:1, 16-18, 35:1-2, 5-7).

(마 6:13)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 32:1) 참으로 한 왕께서 의에 따라 통치하시고 / 통치자들이 정의에 따라 다스리리라.

(사 32:16-18)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 의가 비옥한 땅에 머물며¹⁷의의 일이 화평이 되고 / 의의 결과가 영원토록 평온과 안전이 되리라.¹⁸그리고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처소에 /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

(사 35:1-2) 광야와 메마른 땅이 즐거워하리니 / 사막은 크게 기뻐 / 장미처럼 꽃피리라.²피고 또 피어 / 큰 기쁨으로 기뻐 환호하리라. / 레바논의 영광과 / 갈멜과 샤론의 광채가 그곳에 주어지리니 / 그들이 여호와와 영광과 / 우리 하나님의 광채를 보리라.

(사 35:5-7) 그때 눈먼 이의 눈이 열리고 / 귀머는 이의 귀가 뚫리리라.⁶그때 다리 저는 이가 수사슴처럼 뛰고 / 말 못 하는 이의 혀가 환호하리라. / 광야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 사막에서는 시냇물이 흐르리라.⁷이글거리는 사막은 연못이 되고 / 목마른 대지는 물이 솟는 곳이 되며 / 송냥이들의 처소와 안식처였던 곳에는 / 풀과 갈대와 골풀이 자라리라.

어린양-하나님께서 성안에 있는 보좌에 계심

성경: 계 4:2-3, 22:1-5, 21:23, 겔 1:22, 26-28

-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³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 (계 22:1-5)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³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⁴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⁵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 (겔 1:26-28)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²⁷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습이 호박금의 모습 같았고 사방이 불로 뒤덮인 모습 같았다.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 같았다. 그분 주위에는 사방으로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²⁸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I. 어린양-하나님께서 성안에 있는 보좌에 계신다 — 계 4:2-3, 22:1-5, 21:23.

-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³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 (계 22:1-5)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²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³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⁴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⁵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 (계 21: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 A.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양을 위하여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한 분, 곧 어린양-하나님, 구속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구속자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 계 22:1, 4:2-3.
-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³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

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 B. 영원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보좌에서 우리에게 공급과 만족을 주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 C.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양과 생명수로 상징되시는 그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좌의 권위로 암시되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분배하시는지를 묘사해 준다.

II.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다.

- A.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정생활과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여야 한다. 모든 것이 그분의 머리의 권위에 반드시 복종되어야 한다.
- B. 매일 아침 일어난 후에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제가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종일 당신의 머리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당신의 보좌를 세워 주십시오. 제 존재의 중심에 당신의 보좌를 세워 주십시오. 주님, 저의 하루 전체와 일상의 모든 일이 당신의 보좌 아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매일 아침 삼일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흐를 것이다.
- C.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삼일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을 누리게 된다. 이 강은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과 구속을 이루신 어린양과 지금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 영과 함께 흐른다.
- D.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우리는 생명의 흐름과 함께 생명의 공급과 생명의 길을 누린다. 생명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보며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린다 — 계 22:2-5.

(계 22:2-5) 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 ³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⁴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⁵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III. 에스겔서 1장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맑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겔 1:22, 26.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 A.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은 수정처럼 맑다. 즉, 두려운 수정으로 된 큰 창공과 같

다. 더욱이 이 하늘은 확대되고 있으며 수정처럼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 겔 1:22.

(겔 1:22)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 위로 펼쳐져 있었다.

B.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 서로 사이에도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철저하고도 투명한 교통을 나눈다.

C.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하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양심의 이야기이다 — 행 24:16.

(행 24:16) 이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간직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D. 보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이다.

1.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분의 보좌와 함께 있다.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 — 계 4:2-3, 히 4:16, 비교 딤후 4:22.

(계 4:2-3)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³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a.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롬 8:34)가 지금 우리 안에도(10절), 즉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우리의 영 안에도 계신다(딤후 4:22).

(롬 8:34) 누가 감히 유죄판결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롬 8:10)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입니다.

(딤후 4:22) 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b.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처소인 베엘은 하늘의 문인데, 이 베엘에서 그리스도는 땅을 하늘과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이끄는 사다리이시다 — 창 28:12-17, 요 1:51.

(창 28:12-17) 야곱은 꿈을 꾸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사다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¹³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시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곧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¹⁴너의 씨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져서,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씨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¹⁵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¹⁶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 데도 내가 몰랐구나.” ¹⁷그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의 문이구나.”

(요 1:51) 예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c. 오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

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인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시고 하늘을 우리에게로 이끄신다.

d.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늘의 문을 통과해 들어가, 하늘에 속한 사다리에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은혜의 보좌를 만진다.

2. 수정처럼 맑은 창공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생활에 맑은 하늘이었을 때마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 안에 있는 권위는 맑은 하늘 위에 있는 보좌이다.

3.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 롬 5:17, 21, 비교 마 28:18-20.

(롬 5: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롬 5: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 28:18-20)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¹⁹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침례를 주고, ²⁰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보십시오, 나는 이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4. 보좌는 청옥 모양이다. 파란색인 청옥은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의 하늘에 속한 상황과 상태와 분위기를 상징한다 — 출 24:10.

(출 24:10) 그들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아래에는 청옥을 깔아 놓은 것 같았는데, 맑기가 하늘 같았다.

IV.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분께서 사람처럼 보이시지만 그분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하나님이지가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 분은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겔 1:26, 28.

(겔 1:26)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겔 1:28)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A.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다.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이시다 — 요 1:1, 14, 6:62, 행 7:56, 59-60.

(요 1:1)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요 1: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요 6:62) 그렇다면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행 7:56) 그래서 그가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라고 하니,

(행 7:59-60) 그들이 스테반을 돌로 치니, 스테반이 주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 나의 영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⁶⁰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테반은 잠들었다.

B. 따라서 주 예수님의 승천 이래로 보좌에 계신 분은 사람이시다.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보좌에 계신 분은 여전히 사람이실 것이다 — 마 19:28, 계 22:1, 3.

(마 19: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복원의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여러분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계 22:1) 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 22:3)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

C.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니신 비밀한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사람과 같아지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하여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 창 1:26-28, 비교 사 14:12-14.

(창 1:26-28)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²⁷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²⁸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살아 있는 온갖 것을 통치하여라.”

(사 14:12-14) 새벽의 아들, 계명성아! /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 민족들을 굴복시키던 내가 / 어찌하여 잘려 나가 땅에 쓰러졌느냐? ¹³너는 네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 내 보좌를 높이리라. / 그런 다음 내가 북쪽 끝에 있는 /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¹⁴내가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 내가 나 자신을 가장 높이신 분과 같아지게 만들리라.’

1. 보좌에 계신 분과 네 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네 생물이 보좌에 계신 분의 표현임을 가리킨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다 — 겔 1:5, 딤후 3:15-16.

(겔 1:5) 또 그 한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양이 나타났다. 그 모습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사람의 모양을 지니고 있었다.

(딤후 3:15-16)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고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¹⁶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듯이, 경건의 비밀은 위대합니다! /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 그 영 안에서 의롭게 되셨으며 /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셨으며 / 세상이 그분을 믿었으며 / 영광 안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2.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 안에 그분 자신을 일해 넣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그분을 표현할 사람을 얻기를 원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일하심으로써 사람이 보좌에 앉는 것이다 — 엡 3:16-21, 계 3:21, 5:10, 20:4, 22:5, 마 19:28.

(엡 3:16-21)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¹⁷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¹⁸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¹⁹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²⁰이제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²¹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계 5:10)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계 20:4)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마 19:28)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복원의 때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여러분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3.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신 주 예수님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르고 있다 — 히 2:6-12, 계 3:21, 22:5.

(히 2:6-12) 어떤 사람이 성경 어딘가에서 엄숙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 주님께서 그를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은 그분을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며, 그분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⁸만물을 그분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분께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⁹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¹⁰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¹¹기록하게 하시는 분과 기록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오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¹²“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내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으며,

(계 3: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계 22: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V.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모습에 두 방면이 있다고 말한다. 곧 그분의 허리부터 그 위의 모습은 호박금의 모습이고, 그분의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은 불의 모습이다 — 겔 1:27.

(겔 1:27) 또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위의 모습이 호박금의 모습 같았고 사방이 불로 뒤덮인 모습 같았다. 내가 보니 그분의 허리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 같았다. 그분 주위에는 사방으로 빛나는 광채가 있었다.

A. 호박금은 달아오른 금속으로서 금과 은의 합금이다.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

속을 상징한다. 따라서 금의 요소와 은의 요소로 구성된 호박금은 어린양-하나님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 겔 1:4.

(겔 1:4) 내가 보니, 북쪽에서 폭풍이 불며 큰 구름과 끊임없이 번쩍이는 불이 밀려오는데, 그 주변에 빛나는 광채가 있고, 그 한가운데 곧 불 한가운데에는 호박금 같아 보이는 것이 있었다.

- B. 사람의 상체 곧 허리부터 머리까지는 인식하고 지각하는 부분으로서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본성과 기질에 따르면,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박금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
- C. 사람의 하체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다.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이 불의 모습인 것은 하나님의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움직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한다.
- D.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불처럼 오시어 빛 비추시고 찾으시며 태우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달아오른 호박금이 되시고, 우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으로 충만하게 된다.
- E.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이 태워 버리는 불(히 12:29)이신 주님에 의해 태워진 이후에는 호박금 곧 구속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게 되신다.
(히 12:29)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태워 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VI.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인 무지개가 있음을 말해 주며, 이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 — 겔 1:28, 계 4:3.

(겔 1:28) 그 사방에 있는 빛나는 광채의 모습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 같았다. 그것은 여호와와 영광의 모양이 나타난 모습이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누군가가 말하는 음성이 들렸다.

(계 4:3) 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

- A. 노아 시대에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주는 표시로서,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창 9:13.
(창 9:13) 내가 구름 속에 나의 무지개를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 B. 무지개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색의 조합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의 색인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호박금의 색인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청옥 보좌의 색인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 시 89:14.
(시 89:14) 의와 정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라 / 자애와 진리가 주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 1.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 창 3:24.
(창 3:24)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내시고 나서,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돌며 불을 뿜어내는 칼을 두시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부활하시어 지금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신다 — 고전 1:30.
(고전 1: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3. 이제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 모습은 무지개의 모습으로서,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4. 새 예루살렘성의 기초는 무지개의 모습을 지니는데(계 21:19-20),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언할 것이다.
(계 21:19-20) 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청옥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취옥이요, ²⁰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옥수요,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
5.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은 이러한 무지개로 완결되며, 그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게 된다.

**상과 별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
샬별로서 이기는 이들에게 은밀히 나타나심**

성경: 계 22:12, 16, 벨후 1:19

- (계 22: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별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샬별이다.”
(벨후 1:19) 또한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샬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I.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별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 계 22:12.

- A. 주님은 “내가 속히 가겠다.”(계 3:11, 22:7)라는 경고를 반복하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주실 상별을 우리에게 주의하게 하는 것이다.
(계 3:11)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계 22:7)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 B. 주님께서 오실 때에 믿는 이들은 휴거된 후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이나 별을 받을 것이다 — 고후 5:10, 고전 4:5, 롬 14:10, 마 16:27.
(고후 5: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고전 4: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혀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실 것이니,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롬 14:10)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 16: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 C.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상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샬’을 의미한다.
(계 22:12)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별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에 따라 갚아 주겠다.
- D. 주 예수님은 왕국을 소유하러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모든 이들에게 상이나 별을 주실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별을 받을 것이다. “상별이 나에게 있으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상뿐 아니라 별도 있음을 의미한다.
 - 이것과 일치하여,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주님은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셨다.
 -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 그날 우리가 받는 상별은 오늘날 우리의 태도와 많은 관계가 있다.

- a.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우리가 우리의 수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고전 3: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하나이지만, 각각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 b.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16:27)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인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 E.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왕국 보상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의 생명으로 행한 행위에 따른 것이다.
- F.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한 이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이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 고후 5:10.
(고후 5:10)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 G.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생활과 행함과 행실에 관해 주님께 진술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조차도 감히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했다 — 고전 4:3-4.
(고전 4:3-4)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날에 판단을 받든지, 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4나는 나 자신이 틀렸다고 느끼지 않지만,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 H.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일하는지는 큰 문제이다.
- I. 바울은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남아 있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라고 말했다 — 고전 3:14.
- J.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에서 주님은 우리가 상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를 정하실 것이다.
- K.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벌이 결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자기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그대로 대갚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 고후 5:10.

II. “우리에게는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 벧후 1:19.

- A.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신언자가 말한 말씀을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비유했다.
 - 1. 이것은 이 시대가 어두운 밤(롬 13:12)이자 어두운 곳이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롬 13:12)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 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 2. 성경에 있는 신언자가 말한 말씀은 믿는 이들을 비추는 등불로서 (다만 정신적으로 이해하

기 위한 문자로 된 지식이 아닌) 영적인 빛을 전달하여 그들의 어둠을 비추며, 그들이 밝은 낮에 들어가도록 안내할 뿐 아니라, 어두운 밤을 지나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날이 밝을 때까지 안내한다.

3. 햇빛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시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B. '날이 밝고'(벧후 1:19)라는 말은 하나의 비유로서, 빛으로 충만하게 될 장차 오는 때를 설명하고 있으며, 동트기 전 새벽이 떠오르면서 날이 밝는 것처럼, 새벽이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가리킨다. 이 믿는 이들은 성경에 있는, 빛을 비추는 예언의 말씀에 주의함으로써 비춤을 받고 밝아진 사람들이다.

(벧후 1:19) 또한 우리에게 신언자가 말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날이 밝고 새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1. 변절의 때에 믿는 이들은 신언자가 말한 말씀이 등불처럼 변절의 어둠을 뚫고 비추어 그들에게 날이 밝아 올 때까지, 이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2. 이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여 깨어 있게 함으로써, 그들은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실 때에 그분께서 오시는 것(파루시아)의 비밀한 방면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3. 이 비유는 의의 해(말 4:2)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오실 때, 벧후 1:16)에 밝아 올 날인 오는 시대, 곧 왕국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이 의의 해의 빛은 캄캄한 밤과 같은 이 시대의 암흑을 뚫고 빛을 비출 것이다.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벧후 1:16)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알려 주었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꾸며 낸 신화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위엄을 목격한 사람들로써 한 것입니다.

4. 이 일이 있기 전, 밤이 가장 깊었을 때에 주님께서 사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을 깨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딤후 4:8) 주님은 새벽처럼 나타나실 것이다(계 2:28, 22:16).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계 2:28) 나는 또 그에게 새벽을 줄 것이다.

(계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이다.”

5. 그들은 신언자가 말한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밝아지게 되었고, 그 말씀은 그들을 밝아 오는 날로 인도할 수 있다.
6. 만일 우리가 어두운 곳을 등불처럼 비추는 성경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주님께서 새벽로서 실지로 나타나시기 전에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의 변절의 어둠을 비추실 것이다.

Ⅲ.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 계 22:16하.

- A. 하늘에 속한 광채들, 빛들로 상징되시는 그리스도는 빛나는 샛별이시다 — 계 22:16하.
(계 22:16하)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 B.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백성에게는 일반적으로 돕는 해로서 나타나실 것이지만(말 4:2), 깨어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특별하게 샛별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말 4:2)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치료하는 날개를 지니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잘 먹인 송아지처럼 될 것이다.
- C. 그리스도께서 샛별로 나타나시는 것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시는 보상일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 계 2:28.
- D.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이스라엘과 왕국과 관련되지만, 그분께서 빛나는 샛별이신 것은 교회와 휴거와 관련된다.
- E. 샛별은 동트기 전인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타난다.
- F. 대환난은 이렇게 가장 어두운 기간일 것이며, 그 후에 왕국의 새날이 동틀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장 어두운 기간인 이 시대의 끝 이전에 밝은 샛별로 나타나실 것임을 가리킨다.
- G. 왕국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해로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지만, 대환난 전에 주님은 그분의 이기는 이들에게 샛별로서 은밀히 나타나셔서 그들을 휴거시키실 것이다.
- H. 샛별은 깨어 있는 이들에게만 나타날 것이다.
- I. 잠자는 믿는 이들은 샛별을 보지 못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이신 그리스도만을 보게 될 것이다.
- J. 깨어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오랫동안 이 땅에 계시지 않다가 돌아오실 때, 그분의 임재의 신선함을 가장 먼저 맛보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 K. 성경 전체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도로 끝맺는다.
- L.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요한의 기도는 성경에 있는 마지막 기도이다.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 M.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 계 22:20.